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92호 【루계 제26166호】 주체107(2018)년 10월 19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618건설돌격대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고산과수종합농장건설에 동원된 618건설돌격대를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고산과수종합농장을 대규모과일생산기지로 더욱 훌륭히 전변시킬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평양시식료품 및 수산물도매소 지배인 황문덕은 많은 후방물자들을 618건설돌격대에 보내주어 건설자들을 위훈창조에로 고무하였다.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는 시대의 벅찬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락랑구역종합식당 로동자 류은희는 가정에서 성의껏 마련한 물자들을 가지고 어러차례 돌격대원들을 찾아가 일도 함께 하면서 그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할 일념안고 대동강구역종합식당 로동자 김춘화는 많은 혁명과업을 혁신적으로 수행하면서 물심량면의 지원으로 청춘과원건설에 이바지하였다.

라남제약공장 정양소 소장 허춘희, 사리원시시장관리소 로동자 천혜심은 조국의 만년재부를 일떠세우기 위한 대자연개조전투에 참가한 심정으로 공사를 돕는 일을 스스로 찾아하였다.

고산땅의 전변을 안아오는 거창한 사업에 기여할 열의드높이 룡천군가내작업반관리소 소장 장봉순은 날마다 혁신적성과를 창조하고있는 건설자들의 생활에 뜨거운 혈육의 정을 기울였다.

기상수문국 자료편찬원 김진혁, 함흥시회상구역상하수도사업소 로동자 김은심, 금야군제2인민병원 의사 김영선은 중요대상건설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지원사업에도 앞장섰다.

618무역회사 계산원 류현희도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을 돕는것을 마땅한 본분으로 여기고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적극 헌신해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사진문헌을 모시는 행사

말리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사진문헌을 모시는 행사가 6일 말리 프로그레학교 김정일학급에서 진행되였다.

말리 교육성대표와 프로그레학교 교직원, 학생들, 말리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문헌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김정일학급교실에 정중히 모셔졌다.

학교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 우리는 김일성학급과 김정일학급이 있는 자랑높은 학교에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영상사진문헌을 모시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와 모디보 케이타대통령각하에 의해 마련된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김정은최고령도자각하와 이브라힘 부바꺼르 케이타대통령각하에 의하여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이 기회에 친근한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각하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의 이름으로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의 존함을 모신 학급들을 가진 긍지를 간직하고 훌륭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냄으로써 두 나라 친선관계의 상징인 학교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나갈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벨라루씨단체 인터네트홈페지에 게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의 전문을 조선로동당창건 73돐에 즈음하여 김일성김정일명칭 전국벨라루씨 조선인민의 친우협회가 5일과 6일 인터네트홈페지에 게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집단적혁신, 련대적혁신을 세차게 일으켜 올해전투목표를 기어이 달성하자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청진강재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에 떨쳐나선 청진강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철강재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힘찬 돌격전을 벌려 년간 철강재생산계획을 빛나게 초과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올해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침입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는 한편 일군들이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게 하였다.

일군들은 불붙는 현장에 나가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다.

특히 유도로와 압연기의 정상가동에 힘을 넣고 로력조직과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이 광범히 벌어지고있는 속에 인민경제 여러 단위들에서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초과완수하고 성과를 확대하면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공장에서

자재보장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어 단위시간당 생산능률을 훨씬 높이게 하였다.

공장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원호식련속조피공정을 확립함으로써 생산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끌어올릴수 있는 확고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였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으로 맡겨진 철강재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힘찬 돌격전을 벌리였다.

생산의 첫 공정을 담당한 유도로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렸다. 이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로를 짧은 기간에 기술개건하여 지난 시기보다 차지수를 높이였다. 그리하여 년간 각강생산계획을 넘쳐 해제끼는 혁신을 일으켰다.

압연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부족되는 부속품들과 부분품들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맡겨진 생산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하였다. 이들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탐구도입하여 압연기의 톨수명을 훨씬 높임으로써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많은 철강재를 증산하였다.

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유도로의 수명을 늘이고 쇠물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년간 철강재생산계획을 초과완수한 기세드높이 도안의 전투장들에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보장하기 위하여 계속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희천3호발전소에서

희천3호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물관리,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9월말까지 빛나게 넘쳐 수행한 기세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발전소의 일군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제기있게 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발전설비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기 위해 로동자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떠밀어주고있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 3대혁명소조원들은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리용하여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자체로 정비보수할수 있는 측정설비들과 지구, 공구들을 그믐히 갖추어놓고 설비보수정비를 제때에 질적으로 하고있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1호발전기와 2호발전기려자계통의 불비한 요소들에 대한 기술개건을 자체의 힘으로 진행한데 이어 10월에 들어와서도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발전기들의 효률을 높이고있다.

발전기운전1, 2작업반의 전력생산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해 애쓰면서 순회점검을 정상화하여 매일 많은 전력을 증산하고있다. 그리고 발전설비들에 정통하기 위한 기술학습을 정상화하고 발전효률을 높이는데 힘을 넣고있다. 그리하여 불손실을 극력 줄이면서도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있다.

구조물관리를 맡은 로동자들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과 앞선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수력구조물관리와 물잡이를 과학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보내줄 열의밑에 더욱 분발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서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지난 10월 7일까지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105%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지난 7월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전국의 앞장에서 계속 내달릴데 대한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공장당조직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지지도과업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의 일군들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내밀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과자생산공정을 새로 완비하고 로의 온도를 정상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과자의 색도를 고르롭게 하기 위한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지난 시기보다 제품의 질을 훨씬 높이였다.

일군들은 특히 분석설비들을 완벽하게 갖추어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였다.

또한 통합생산체계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는것과 함께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설비들과 포장공정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내밀어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갔다.

사탕1, 2작업반과 빵1, 2작업반, 강정작업반을 비롯한 생산단위들에서 맛좋고 영양가높은 식료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렸다.

공무작업반을 비롯한 보장단위들에서도 생산을 함께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에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할수 있게 자체의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려놓고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보다 높은 목표를 내걸고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식료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계속 지펴올리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신천일

령도업적단위들이 앞서나간다

자강도의 경공업공장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자강도안의 경공업공장들에서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성대히 경축한 긍지를 안고 떨쳐나선 경공업공장들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새 제품개발과 질제고에 힘을 넣으면서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소비품생산에 계속 힘을 넣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경공업전선을 농업전선과 함께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화력을 집중해야 할 주타격방향으로 정해준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경공업공장들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경공업공장들이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앞장에서 나가도록 고무추동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해당 부문 일군들은 령도업적단위들이 새 제품개발과 질제고에 힘을 넣어 쓸모있고 다양한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대책들을 세워주고있다.

강계은하피복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매달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생산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주체97(2008)년 7월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공장은 인민을 위해 충심히 복무하는 공장, 실리가 있는 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계속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공장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에 새겨안고 생산기술공정들을 더욱 완비한데 맞게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넣고있다. 이와 함께 로동자들이 피복제작공정에 따르는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있다.

선행공정을 맡은 기술준비실은 물론 재단작업반과 가봉직장들에서도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작업반, 직장들사이 사회주의경쟁과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공장에서는 피복제품생산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하는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강계편직공장에서는 전력계통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전기를 효과있게 리용하면서 생산을 정상화해나가고있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생산에서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그리하여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성과 제품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직장, 작업반들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큰 힘을 넣어 성과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장자산종합식료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였던 영광의 그날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일터마다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원료투입으로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들의 자동화, 무균화, 무진화가 철저히 보장된 강냉이가공공정현대화공사를 짧은 기간에 다그쳐 끝낸 기세드높이 과자, 국수, 옥쌀, 볶엿을 비롯한 맛좋고 영양가높은 강냉이가공품생산에서 실적을 올리고있다.

강계기초식품공장에서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고있다.

공장에서는 간장, 된장, 기름생산 및 출하공정의 현대화와 통합생산체계에 의한 경영활동의 과학화를 실현한데 맞게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면서 기초식품의 가지수를 늘이고있다.

만포방사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더 높은 생산성과로 빛내일 불타는 열의를 안고 설비들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다루면서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특파기자 김순홍

보건산소공장건설 마감단계

평안북도에서

평안북도에서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응축되여있는 보건산소공장건설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보건산소공장건설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짧은 기간에 방대한 건축공사를 결속하고 새형의 액체산소분리기를 설치한데 이어 시운전을 진행하는 등 총공사량의 98%를 수행한 기세드높이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의학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보건산소공장건설을 완공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전개력이 있고 내밀성이 있는 일군들로 현장지휘부를 조직하고 도안의 보건기관들에서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이 착공의 첫삽을 박았다.

도당책임일군들은 새로 건설하는 보건산소공장건설장에 나가 정치사업도 하고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현장지휘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북돋아주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세멘트와 흙세 등 자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선행시키면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구호를 단순한 선동구호가 아니라 실천의 구호, 애국의 구호로 어기고 하나의 건축물을 일떠세워도 기술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여나갔다. 이와 함께 시공조직과 지도사업에 힘을 넣어 건설물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였다.

건설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은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깃들어있는 보건산소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우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면서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나갔다.

그리하여 도에서는 짧은 기간에 4개 호동에 대한 건축공사를 결속하고 울타리공사와 상하수도관놓이기 등 마감공사를 결속한 기세로 설비설치공사를 진행한데 이어 시운전을 하고있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 락원산소분리기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산소분리기술의 최신성과에 기초하여 짧은 기간에 우리 식의 액체산소분리기를 제작하여 보건산소공장에 설치하고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있다.

현장지휘부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면서 여러개의 방들에 대한 아크릴계칠감도색을 진행하는 등 미진된 부분들에 대한 마감공사를 적극 다그치고있다.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현실로 꽃피워가려는 도안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보건산소공장건설은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으며 완공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과수발전설대상공사 80%계선 돌파

북청군에서

북청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고장을 굴지의 과일생산기지로 훌륭히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날로 변모되는 부강하고 문명한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크나큰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느끼게 되며 애국의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게 됩니다.》

이미 봄에 수백정보의 과수밭을 조성한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짧은 기간에 수십동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일떠세운 기세로 과일보관고건설과 과일가공공장개건, 축산기지건설을 힘있게 내밀었다. 그리하여 18일현재 올해 맡겨진 과수밭건설대상 공사량의 80%계선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북청군을 찾으시여 수천정보에 달하는 포전들을 하나의 대과수원으로 전변시킬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군에 현대적인 과일가공기지를 꾸리고 능력이 큰 과일보관고들과 축산기지들을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뜻대로 하루빨리 군을 굴지의 과일생산기지로 꾸리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을 안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파감히 뚫고나가며 토지정리와 전호시구덩이파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수십만그루의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들을 심었다. 거둔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이들은 련이어 한달 남짓한 기간에 수십동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일떠세운 기세로 지금 과일보관고건설과 과일가공공장개건공사, 축산기지건설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과일보관고건설을 맡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당이 정해준 시간에 당이 내세운 목표를 반드시 점령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와 배짱을 안고 맡은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자기것이 제일이고 자기 힘이 제일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한 이들은 합리적인 지구장비를 받아들여 전문건설단위에서만 할수 있던 대형트라스를 자체의 힘으로 제작설치하고 련이어 천정과 지붕재씌우기, 벽체내부보랭미장, 건물내외부도색을 전부 끝냈다. 그리하여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으며 건축공사를 완성하고 설비조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과일가공공장의 사무실들과 문화후생시설공사를 맡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를 높이 들고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 드높은 열의밑에 드센 공격전을 벌리고있다. 이미 벽체쌓기와 지붕공사, 외부미장과 창문설치를 끝낸 이들은 기술규정과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건물외장제바르기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10여개의 축산기지건설장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축산기지건설을 맡은 과수농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건축공사를 전부 끝낸 기세로 내부공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내밀고있다. 축산기지건설을 끝낸 단위들의 뒤를 이어 많은 과수농장들에서 부족한 철근들을 자체로 마련하면서 돼지우리살창제작설치작업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근책임일군들은 공사가 마감단계에 이른데 맞게 모든 시공단위들에서 건설물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는데 힘을 집중하고있다.

지금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맡은 대상공사를 올해안으로 끝낼 드높은 열의밑에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정성일

인민을 정신력의 강자로 키우신 위대한 령도

련속적인 공격과 최대한의 증산으로 올해의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공격전의 힘찬 발걸음소리가 강산을 울린다.

주체철생산체계가 확립되어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의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고 인민경제 여러 단위에서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생산적앙양의 동음을 더 높이 울리고 있다.

백두산기슭의 삼지연군꾸리기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단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창조되는 놀라운 건설속도는 그대로 우리 인민의 앙양된 투쟁기세를 보여주고있다.

아직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시련의 험산준령들이 중중첩첩 막아나서고있다.

과연 무슨 힘이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모진 시련과 난관을 파잡히 짓부시며 당이 가리키는 한길을 따라 힘차게 내달릴수 있게 하는것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지금까지 남을 믿고 혁명을 한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정신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령도하여왔습니다.》

뜻깊은 올해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우리 국가의 강용한 기상을 만방에 떨치고 경제건설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려는것은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온 나라 인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던 감격의 그날이 눈앞에 어려온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인민의 가슴가슴은 얼마나 뜨겁게 달아올랐던가.

돌이켜보면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력사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위대한 혁명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인민대중의 불굴의 정신력으로 승리떨쳐온 력사였다.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주의건설의 격동적인 년대들에 우리 인민을 지칠줄 모르는 창조와 투쟁에로 힘껏 떠밀어준 근본원천은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을 달려 이 땅우에 기어이 부강조국을 일떠세우려는 견결한 의지였다.

조국번영의 길에서 높이 발휘된 우리 인민의 정신력, 이를 어찌 우리 인민의 강의한 민족적자존심과 기개가 낳은 력사의 필연이라고만 하겠는가.

시대와 망국으로 수난도 많았던 이 땅에 위대한 혁명정신, 불굴의 정신력이 나래치도록 하여주신분은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이 엄청나게 많은 적과 싸워이길수 있은 비결에 대하여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강한 정신력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필승의 신념,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헌신성과 희생성, 이런 정신에 대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백두의 혁명정신》이라는 말로 통칭하고있다. 수배 혹은 수십배의 적앞에서도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반드시 이길수 있다는 자신심과 백절불굴의 투지, 자기희생성을 가지고 싸웠기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적들과 맞서도 패한적이 없었다. …

우리 수령님께서 20성상의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 창조하신 백두의 혁명정신을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로, 영원한 혁명의 피줄기로 굳건히 이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백두의 혁명정신은 만난을 맞받아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라고, 백두의 혁명정신은 찍이면 찍일지언정 신념을 버리지 않는 견결한 혁명정신이며 제힘으로 기어이 조국땅에 사회주의락원을 건설하려는 숭고한 혁명정신이라는데 대하여 그 심오한 뜻을 밝혀주시며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나래치도록 하신 우리 장군님의 영원불멸할 업적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겠는가.

백두의 혁명정신, 이 위대한 혁명정신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년대와 세기를 이으며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강자들로, 영웅적인민으로 력사의 갈피에 뚜렷한 장을 새길수 있었다.

우리 혁명의 년대마다에 승리의 기치로 빛나는 백두의 혁명정신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이 숭엄히 어려온다.

격동적인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우리 원수님께서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자주 오르시였다.

어이하여 우리 원수님께서 백두산에 자주 오르시였는지, 그것은 시대가 발전하고 혁명이 전진할수록 백두의 혁명정신을 백승의 기치로 높이 추켜들고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나가시려는 확고한 의지의 분출이 아니였던가.

멸해전에도 몰아치는 사나운 눈갈기를 한몸에 맞으시며 백두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올라 백두의 칼바람을 맛보아야 백두산의 진짜맛을 알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게 된다고,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은 그 어떤 핵무기의 위력에도 비할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량식을 안겨주는 길,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내여가는 길, 영광넘친 조선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가는 길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시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인민이 심장속에 영원히 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이다. …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은 그대로 우리 인민의 불굴의 신념으로, 철석같은 의지로 되였다.

천만의 심장마다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만장약해주시며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우리 인민을 불러일으켜 이 땅우에 세기적인 기적과 전변의 새 력사를 펼쳐놓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건설의 대번영기속에 주체조선의 새로운 비약과 불패의 국력을 만방에 과시하며 이 땅에는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만리마의 시대, 문명이 한껏 꽃펴나는 비약과 번영의 시대, 모진 시련속에서도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더 높이 울려퍼지는 참으로 놀라운 시대가 펼쳐졌다.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려명거리…

이 땅에서 이룩된 그 모든 성과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든지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결사관철하는것을 체질화한 우리 인민의 완강한 공격기질, 한계를 모르는 무한대한 정신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력사의 기적을 안아오는 인민의 정신력은 위대한 수령의 령도력과 의지에 의하여 더욱더 힘있게 폭발하는것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투장들마다에서 료원의 불길처럼 타번지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불철주야로 이어가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때로는 당과 국가의 중요회의들을 지도해주실 때에도 언제나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강조하신 우리 원수님,

언제인가 한 공장을 찾으시어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키는것이 기본이라고, 공장에서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한것도 중요하지만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자체의 힘으로 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린것이 더 귀중하다고, 핵무기보다 더 큰 힘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기적을 낳는 원천은 대중의 앙양된 정신력이라는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두해전 12월 신세계한 강원도의 원산군민발전소를 돌아보실 때에도 강원도인민들의 투쟁본때를 대하고보니 당의 부름이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이런 강의한 인민과 함께라면 천리불속이라도 헤쳐갈수 있으며 사회주의강국의 문패를 달게 될 날을 앞당겨올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하신 우리 원수님이시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원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한 불굴의 투사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고 불러주시며 그에 대한 최상최대의 믿음도 안겨주시였다.

우리 인민을 정신력의 강자, 새로운 시대정신의 창조자들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은 온 나라를 쇠물마냥 끓어번지게 하였다.

주체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우리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인민이 사랑하는 명제품, 명상품들이 쏟아져나오고 첨단돌파전의 열풍속에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이 이룩되였으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펼쳐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따르면서 우리 인민은 자기들이 지녀야 할 정신력의 새로운 높이를 보고있으며 경제강국건설의 승리에 대하여 확신하고있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나선 올해의 경제건설과업들을 수행할수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불굴의 신념으로 간직한 인민에게는 절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의 전투를 빛나게 결속하는 여기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는 길이 있다.

보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여,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으로 경제건설대진군을 진두지휘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애국헌신의 발걸음에 투쟁과 전진의 보폭을 따라세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빛내이자.

본사기자 채 히 성

기적창조의 원천

끊임없이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창조물들 가운데는 전민학습의 대전당, 최신과학기술보급의 거점인 과학기술전당도 있다.

대동강의 한복판에 자리잡은 풍치수려한 죽섬에 특색있게 솟아난 국보적인 건축물인 과학기술전당, 세상에 들도 없는 이 전민학습의 대전당은 어떻게 일떠설수 있었던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적은 결코 저절로 일어나는것이 아니며 기적을 낳는 어머니는 대중의 앙양된 정신력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야 합니다.》

주체104(2015)년 10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완공된 과학기술전당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전당을 다기능화된 현대과학기술보급기지, 정보교류의 거점으로 일떠세운 결과 전국의 모든 과학연구부문, 교육기관, 공장, 기업소들은 물론 가정들에서도 국내콤퓨터망으로 실시간 편리한 봉사를 받을수 있으며 필요한 과학기술자료들을 서로 교환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과학자숙소의 23층 로대에 서시여 과학기술전당을 부감하시면서도 정말 요란하다고, 대단하다고, 별천지라고, 속섬에 천도게 벽이 일어났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전당이 훌륭히 완공됨으로써 당창건 일흔돐을 경축한 뜻깊은 10월이 날마다 흥하는 내 조국에 기쁨을 더해주는 10월로 되였다고 기쁨 만족을 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과학기술전당을 장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저 보기만 하자고 해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방대한 건설을 그처럼 짧은 기간에 완공하느라고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이 얼마나 수고하였으랴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 인민의 창조적열정과 불굴의 정신력, 불타는 애국심에 탄복을 금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이 땅에서는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새로운 시대어로 태여났는데 과학기술전당을 바라보느라니 우리 조국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래일이 다르게 비상히 놀라운 속도로 전변되고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갈마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귀전에 울리는 그이의 음성은 일군들의 뇌리에 과학기술전당건설의 가슴벅찬 나날을 떠올려주었다.

그해 2월 찬바람이 불어치는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며 과학기술전당을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이 집대성되고 건축미학적으로나 실용성에 있어서 흠잡을데 없는 세계적인 건축물, 전체 인민이 찾아와 마음껏 과학기술을 습득하는 정든 집으로 훌륭히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봉사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날 봉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당창건 일흔돐까지 과학기술전당을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움으로써 과학의 힘으로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조선의 결심을 온 세상에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자고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호소를 자기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으로 받아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건설자들은 방대한 건설전투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과학기술전당을 훌륭히 일떠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격동적인 그 나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볼수록 일군들의 가슴은 우리 인민들이 발휘하고있는 불굴의 정신력의 원천에 대한 생각으로 불덩이를 안은듯 뜨거워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들을 찾고찾으시며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이 바로 우리 인민의 견인불발의 혁명정신과 무비의 희생성, 대중적영웅주의를 폭발시키고 세기적변혁을 안아오는 근본원천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한 영 민

비약의 나래를 펼쳐주시던 나날에

기적을 낳는 힘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건현대화된 광포오리공장을 찾으신 10여년전 9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다고, 지난 기간 개건현대화된 공장, 기업소들을 돌아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지만 자체의 힘으로 개건현대화한 광포오리공장을 돌아보니 기분이 더 좋다고, 이렇게 자력갱생하여 공장을 개건현대화해놓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며 만족해하시였다.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공장의 로동자들에게 크나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격정에 잠겨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은 당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면 자력갱생할 생각부터 하지만 사무실에 앉아서 말공부나 하는 책상주의자들은 무엇을 하라고 하면 돈을 달라고 손부터 내민다고, 그런것을 놓고보면 돈보다 사람의 정신력이 더 강하다는것을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정신력만 있으면 돈이 없어도 무엇이나 다 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기적을 낳는 힘은 정신력이라는것을 더욱 깊이 새겨안았다.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98(2009)년 1월 새로 건설된 원산청년발전소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먼뜻하게 일떠선 발전소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산청년발전소는 자랑할만 한 자력갱생의 창조물이라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억척같은 신념을 안고 비상한 애국열의와 창조력을 발휘한 결과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규모가 큰 발전소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낼수 있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자랑찬 성과는 당의 두리에 하나로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위력과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사회주의강국을 키워이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정신력의 승리이라는데 대하여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강원도인민들과 일군들속에서 발휘된 불굴의 정신력과 혁명적인 사업방법,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적극 따라배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원산청년발전소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전체 인민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킨 력사적인 현지지도였다.

애국심의 발현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원산제염소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이날 강원도에서 자체로 생산한 소금으로 도의 소금수요를 충당하고있다는 일군의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도내인민들이 류례없이 간고한 시련과 난관이 겹쌓였던 그처럼 어려운 고난의 행군시기에 완강한 의지와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나라의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재부를 마련한 결과 지금 그 덕을 단단히 보고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제염소건설과 운영을 통해서도 강원도인민들의 무궁무진한 정신력과 불타는 애국심을 다시금 똑똑히 엿볼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과분한 치하를 받아안은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애국심이 있어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할수 있다고, 정신력이자 애국심의 발현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정신력은 애국심과 결합되여야 무한대의 창조적힘으로 발휘될수 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본사기자 전 광 남

혁명가들의 고유한 기질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번지고있는 오늘 누구보다도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 일군들이다.

일군들이 얼마나 머리를 쓰고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증산돌격운동의 성패가 달려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최대의 마력을 내여 긴장하게 일하여야 한다는것이 오늘 우리 당의 뜻이다.

책임일군들부터가 긴장하게 일하면 아래 일군들이 분발하게 되고 군중이 분발하여 뛰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순간도 마음의 향개를 늦춤이 없이 언제나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것은 우리 혁명가들의 고유한 기질입니다.》

높은 사업열의를 가지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기어이 수행하고야마는 혁명적일본새,

언제나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하고 생활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무조건 해제끼는 혁명적인 기질을 발휘하는 과정에 우리 일군들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이고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할수 있다.

어떤 환경속에서도 자기가 맡은 임무를 제힘으로 끝까지 수행하고 실적을 올리는 일군, 말로 금때려 하지 않고 진심을 바치고 배심을 들여 실속있게 일하며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는 일군이 우리 당에 필요한 일군이다.

지금은 직위나 간판을 가지고 일할 때가 아니라 충실성과 실력을 가지고 일할 때이다. 충실성과 실력을 추동해주는 수단은 마음을 바짝 조이는 긴장성이다.

일군들이 오늘의 벅찬 투쟁속에서 언제나 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서는 더 많은 일감을 맡아안고 늘 바쁘게 뛰여다니고 헌신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있어서 일에 파묻혀 튀이을 때가 제일 보람있고 행복한 때이라고 하시면서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고 뛰고 또 뛰여야 하며 시간이 가는줄 모르고 긴장하게 일하는데서 삶의 보람과 희열을 느껴야 한다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항상 격동상태에서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살며 일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또 긴장하게 살겠다고 결심한다고 하여 쉽게 그렇게 되는것도 결코 아니다. 문제는 언제나 전투적으로 살며 일하는것을 습성화, 제질화하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교시를 우리 일군들은 다시금 심장깊이 새겨야 한다.

항일혁명투사들은 해방후 조국에 돌아와서도 방안에서는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밖에서 해낭까지 지고 잠을 자군 하였는데 이것은 오랜 유격투쟁속에서 습성화되고 제질화되였기때문이다. 물론 오늘에도 그렇게 하라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나 잠을 자도 마음의 신들메를 단단히 조이는 항일혁명투사들의 습성을 따라배워야 한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혁명가로서의 근본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며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언제나 전투적으로 긴장하게 살줄 알아야 한다. …

일감을 놓고 열정이 불타오를 때에는 며칠밤을 밝혀도 힘든줄 모르는 법이다. 금할줄 모르는 강의한 의지와 비상한 정열로 사업을 긴장하게 하는 바로 여기에 일군으로서의 삶의 보람이 있으며 혁명전사의 영예를 빛내이는 참된 길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심장을 뜨겁게 불태우는 진짜배기혁명가가 되자면 혁명밖에 모르는 사람,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여야 한다고, 그런 사람은 늘 일감을 만들어가지고 긴장하게 일하며 휴식을 하고 사사일을 하여도 혁명의 리익을 생각하면서 한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평상시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전심전력하는 버릇을 붙여야 시련의 시기에도 혁명적질개를 끝까지 지켜싸울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일군들은 어렵고 힘든 일에 부닥치면 주저없이 앞장에 나서며 모든 일을 패기있게 전투적으로 해제끼며 언제나 만무하를 걸고 사업을 긴장하게 해나가야 한다.

일군들부터가 진실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분초를 아껴가며 몸과 마음을 다바쳐 헌신적으로 일하여야 사람들에게 과업을 주고 그 집행정형을 수시로 알아보고 독촉하며 제때에 총화도 해줄수 있으며 늘 긴장하게 일하도록 요구성을 높일수 있다.

일이 잘되지 않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슴아파하지 않고 과업을 받으면 되받아넘기고는 제 할 일을 다한듯이 앉아있거나 새로운 당정책이 나오면 즉시 집행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지 않는데서 표현되는 안일성, 해이성,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잠시도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혀있을수 없으며 사소한 안일성, 해이성, 권태증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뼈에 새기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충정의 보고를 올리기 위하여 긴장하고 또 긴장하게 일하는 기질,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이런 기질을 소유한 일군들을 부른다.

본사기자 량 순

김영남동지에게

타이왕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에게 켐폰 피리야 주조 타이왕국 특명전권대사가 1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외무성 부상 리길성동지와 타이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와산동-룡성도로 확장공사의 나날에 보여주신 숭고한 인민적풍모를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다.

-장산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위대한 혁명정신의 빛나는 계승속에 혁명의 승리적전진이 있고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이 있다는것은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새겨진 력사의 진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며 백두의 혁명정신과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지난날의 모든것이 기억에서 삭막해지게 된다.

허나 우리 전쟁로병들의 위훈은 날이 갈수록 인민의 심장속에 더욱 깊이 새겨지고있으며 전승세대는 승리의 축포가 오른지 65년전 그날처럼 오늘도 위대한 승리자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인생의 영광을 누리고있다. 이 자랑찬 현실은 전승의 력사와 전통, 전승세대의 정신과 위훈을 끝없이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고결한 도덕의리의 세계가 안아올린 숭고한 화폭인것이다.

몇해전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서 하신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은 전쟁로병들을 피로써 조국을 지킨 은인으로뿐아니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계승자들의 대오에 조국결사수호의 맥동을 더해주는 훌륭한 혁명선배, 교양자로 더없이 존경하며 높이 내세우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전쟁로병들을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조국결사수호의 맥동을 더해주는 훌륭한 혁명선배로, 교양자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여기에는 전승세대들의 불굴의 정신과 영웅한 투지로 이 땅우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생의 념원인 사회주의강국을 키워이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이 어려있다.

전화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조국수호정신, 이것은 그 어떤 물리적힘에도 비할수 없는 최강의 힘이며 우리 새 세대들이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인 로병들에게서 넘겨받아야 할 가장 귀중한 유산이다.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열렬한 조국애,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 결사의 의지로 피를 끓이며 가렬처절하였던 조국해방전쟁의 3년간 우리의 영웅한 인민군전사들은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수호하였다.

1950년대의 조국수호자들이 발휘한 투쟁정신을 귀중한 혁명유산으로 여기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쟁로병들은 불타는 전호가에서 최고사령부를 그리며 혁명가를 부르던 그때처럼 로쇠를 모르는 열정과 기백으로 당과 조국을 받들며 후대들에게 백옥같은 충정의 일편단심과 죽어도 버리지 않는 혁명신념,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을 피줄기로 넘겨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전화의 나날 영웅전사들속에서 발휘된 조국수호, 혁명보위정신이 모든 인민군장병들의 신념의 기둥으로, 최고사령관의 명령지시에 절대복종하는 혁명적군풍이 인민군대의 첫째가는 기강으로 억척같이 세워져야 하며 한치의 땅도 목숨바쳐 지키는 열렬한 조국애와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는 멸적의 투지가 근위부대운동이 전개되는 훈련장과 싸움터마다에 용암처럼 끓어번져야 한다.

땀손으로 피대를 돌리며 전시생산을 보장한 그 정신, 폭격속에서도 식량증산과 전시수송, 전선원호에 모든것을 다 바친 그 기백이 나래칠 때 경제강국건설의 전구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고 온 나라에 황금벌, 황금해, 황금산의 눈부신 현실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

그렇다. 오늘의 경제강국건설은 우리 인민이 어떤 정신력을 지니고 어떻게 살며 투쟁하는가에 그 승리가 결정된다.

우리 인민이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만장약하고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위훈과 기적을 창조해나갈 때 점령 못할 요새도, 극복 못할 난관도 있을수 없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의 영웅한 인민군전사들이 발휘한 투쟁정신을 값높이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전승세대의 위훈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할것이다.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살며 투쟁해나가는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천겹, 만겹의 성새를 이루었기에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며 조국의 미래도 찬란하다.

본사기자

석탄전선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집중하자

능숙한 작전과 지휘로 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대중을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공격전, 총돌격전에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평안남도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석탄생산이 기본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집중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일터마다에 창조와 혁신의 기백이 차넘치게 하고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도예술선전대와 강연강사, 작가, 출판물보급원들로 집중경제선동대를 무어 여러 탄광들을 순회하면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피도록 하고있다. 또한 집중경제선동대원들로 하여금 만리마속도창조로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기 위해 수천척지하막장에서 값높은 삶의 자욱을 새겨가는 탄부들의 투쟁모습을 생동한 자료를 가지고 펼쳐보이도록 하고있다.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집중경제선동대원들과 함께 승리를 같이하며 지칠줄 모르는 왕성한 투지와 의욕으로 실효성이 높은 작품들을 창작하도록 그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또한 경제선동대원들이 탄부들과 함께 어울려 일하면서 증산투쟁에 활력을 부어주고 그 틈속에서 집단적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도록 하고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방송야회를 의의있게 조직하여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에 석탄증산으로 화답해나선 탄부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은 탄광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석탄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부속품들을 보장해주는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도당위원회적인 작전에 따라 근 2천m³에 달하는 동발나무를 탄광들에 시급히 보장하는 사업이 힘있게 전개되고있다. 동발나무가 들어간것만큼 석탄생산실적이 올라간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각 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밤이 짧도록 뛰고 또 뛰며 기관차적역할을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또한 탄차의 가동률을 높여 생산된 석탄을 제때에 운반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탄광들에서 빠른 시일안에 석탄운반수단들을 수리정비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모든 탄광련합기업소들에서 자력갱생기지들을 대폭 튼튼히 꾸리고 이미 갖추어진 토대에 의거하여 필요한 설비들을 자체로 생산함으로써 막장의 기계화비중을 끌어올리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제작한 라선형물고리식압축기를 다른 련합기업소들에서도 만들도록 하는 사업을 박력있게 내밀고있다. 이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여러 탄광련합기업소들에서는 새형의 압축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여 석탄생산에 도입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은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 내려가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대중속에 깊이 인식시켜 중공강생산기지에서 착암기의 만가동에 필요한 중공강을 다량생산할수 있게 하고있다. 또한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자력갱생기지에서도 탄광들에 질높은 중공강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도록 하는데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와 함께 이미 능력이 큰 권양기와 버력적재기, 탄차베아링을 생산하는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각이한 능력의 압축기들을 비롯하여 막장설비와 부속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고있다. 또한 탄광련합기업소당조직들에서 기술자, 기능공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는 사업을 당적으로 밀어주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자체의 기술개발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받아들이며 과학연구기관들과의 창조적협동을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따라세우도록 하고있다.

그리하여 서부지구의 탄전들에서는 생산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는 가운데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단위들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덕성탄광 강호영청년돌격대원들은 뜻깊은 올해를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뜨거운 애국의 마음안고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며 련속적인 공격전을 돌이대어 년간 굴진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년간계획을 수행한 단위들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이 단위들의 모범을 본받도록 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그리하여 각 탄광들에서는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활기있게 벌어지고있으며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의 도수가 한층 높아지고있다.

각 탄광련합기업소와 탄광의 일군들은 증산돌격운동의 불길높이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오늘의 총공격전의 기수답게 만점을 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면서 작전과 지휘를 제기있게 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지금 도안의 탄광들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투쟁열, 혁명열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높은 석탄생산실적으로 올해전투를 결속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오철훈

탄전이 끓어야 경제전반이 활력있게 전진한다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며 석탄공업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이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이 힘차게 벌어지는 오늘날 인민경제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더 많은 석탄을 요구하고있다.

석탄이 많아야 나라의 건장한 원료, 연료, 동력문제를 풀고 인민경제전반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한마디로 석탄전선은 경제건설의 전초선이라고 말할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합니다.》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지금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수천척지하막장마다에서 끊임없는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조양탄광, 개천탄광과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립석탄광, 봉림탄광을 비롯한 각지 탄전들에서는 많은 석탄을 캐내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자연과의 투쟁인 석탄생산에서 조건은 더욱 불리해지고있다. 이것은 설비와 자재, 부속품 등 석탄생산에 필요한 모든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 무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며 생산적앙양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석탄공업부문 일군들과 탄부들에게만 한한 문제가 아니다. 공업의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경제전반에서 생산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자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석탄생산을 함께 책임졌다는 립장에서 석탄전선을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투쟁에 사상적으로 동원되여야 한다.

전당, 전국, 전민이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련관부문, 련관단위들에서 석탄생산에 필요한 동력과 설비, 자재보장사업을 잘해야 한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탄광들에 전력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늘이는것이 석탄증산에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한W의 전력이라도 탄광들에 더 보내주기 위하여 뛰고 또 뛰여야 한다.

동발이 들어간것만큼 석탄이 나온다는 말도 있듯이 동발보장은 석탄생산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림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석탄증산을 위하여 불굴의 투쟁을 벌리는 탄부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심정으로 동발나무들을 탄광들에 더 많이 보내주어야 한다.

막장작업의 기계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여러가지 능률적인 채취설비들을 탄광들에 원만히 생산보장하여 드높은 기계화의 동음이 석탄폭로로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

금속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는 석탄생산에 필요한 철강재와 자재, 부속품들을 제때에 보장해주어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의 수송전사들은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석탄전선으로 보내는 물동을 제때에 신속히 실어날라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탄전이 들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고 석탄산이 높아져야 경제건설대진군속도가 빨라진다는것을 명심하고 석탄전선을 성심성의로 지원하여 탄부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전당, 전국, 전민이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자.

한전호를 지켜선 심정으로

성, 중앙기관들에서

온 나라가 석탄전선지원열기로 들끓고있는 가운데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할 애국의 마음을 안고 각지 탄광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고있다.

18일현재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10월에 들어와서도 여러 성, 중앙기관들에서 많은 량의 자재들과 지원물자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석탄생산으로 들끓는 각지 탄광들에 보내주었다.

성, 중앙기관 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에 크게 고무된 각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은 올해전투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공업의 식량인 석탄이 많아야 전력생산을 높이고 금속, 화학 등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이 활력있게 전진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한 성, 중앙기관 일군들은 탄광일을 자기 단위의 일처럼 여기고 석탄증산투쟁에 이바지하는 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모든 성, 중앙기관의 책임일군들은 탄광지원이 가지는 중요성을 자각하고 직접 갱막장들에 들어가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즉시 대책을 세워 석탄생산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탄부들의 생활실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여러가지 생활필수품들을 성의껏 마련하여주어 그들을 증산투쟁에로 적극 고무추동해주고있다.

오늘의 증산돌격운동에서 석탄전선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대외경제성, 국가품질감독위원회의 일군들이 애국의 마음안고 탄광을 지원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다.

2.8직동청년탄광, 평대탄광, 천성청년탄광을 비롯한 순천지구의 탄광들을 찾은 대외경제성,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일군들은 탄차베아링과 용접봉을 비롯한 많은 량의 자재들과 물자들을 지원하고 탄부들의 일도 도와주면서 그들의 투쟁열의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체신성과 원유공업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해사감독국, 영광무역국 일군들은 탄광지원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얼마전에도 이곳 일군들은 석탄생산에 필요한 많은 소공구, 로동보호물자들을 마련하여 개천탄광, 조양탄광, 봉천탄광에 나가 증산돌격운동에 떨쳐나선 탄부들의 로력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특히 체신성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탄부들과 무릎을 같이하고 생산에서 실질적으로 걸린것이 무엇인가를 료해한데 기초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어 석탄증산투쟁을 떠밀어주었다.

회안청년탄광, 남양탄광, 득장청년탄광 등 여러 단위들에 내려간 로동성, 교육위원회, 무역은행, 기계공업성의 일군들은 탄광일을 자기 단위 일처럼 여기고 모든 정무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 과정에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기 위한 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여 탄차베아링과 피대, 정압을 비롯한 많은 설비와 자재, 탄부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후방물자들을 탄광들에 보내주었다.

수도건설위원회, 채취공업성, 국가비상재해위원회, 중앙통계국의 일군들도 10여종에 달하는 자재들과 로동보호 및 후방물자들을 안고 서부지구의 여러 탄광들을 찾아가 석탄증산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탄부들의 전투적사기를 높여주었다.

이밖에 많은 성, 중앙기관들에서도 석탄생산을 함께 책임졌다는 립장에서 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탄광을 실질적으로 돕고 탄부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해주기 위한 지원사업을 잘 해나가고있다.

성, 중앙기관 일군들의 힘있는 지원열의에 고무된 석탄공업부문 일군들과 탄부들은 올해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홍성준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해가는 일본새

남양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남양탄광에는 올해에 년산 수십만t능력의 새 탄밭이 개발되였다. 그만큼 총전보다 많은 로력과 설비, 자재, 부속품들이 요구되고있다. 하지만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부족한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생산활성화의 돌파구를 주동적으로 열어나가고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기수인 일군들의 위치와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때 과학적인 작전으로 석탄생산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는 본받을 점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남양탄광 일군들에게서 본받을 점은 한마디로 말하여 당앞에 석탄생산을 책임졌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생산활성화의 방도를 주동적으로 찾아나가는 혁신적인 일본새이다.

새로 개발한 갱에 자연흐름식배수체계를 도입한 실례를 들어보자.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탄광일군들은 새로운 갱굴진을 앞두고 심각한 론의를 진행하였다.

새 탄밭개발로 갱막장들이 늘어나는데 따라 설비, 자재 등이 더 많이 요구되였다.

뽐프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따져본데 의하면 신설하는 구역에서 시간당 차오르는 물량은 수십m³로 예측되였다. 장마철에는 훨씬 더 많아질것이였다.

따라서 생산조건을 보장하자면 많은 뽐프가 요구되였다.

뽐프를 리용하지 않고 물을 뽑아낼수 없겠는가. 이렇게 문제점을 세운 일군들은 실태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았다.

사실 탄광에서는 이미 여러 갱들에서 자연흐름식배수를 하여 많은 설비들을 절약하면서 생산조건을 충분히 마련하고있었다. 만약 새로 개발하는 갱에서도 자연흐름식으로 배수를 한다면 거기에서 얻는 리익은 컸고 적지 않았다.

책임일군들은 직접 현장을 밟아보면서 방도를 찾아나갔다.

손금보듯이 훤히 꿰고있는 갱막장들도 하루에 여러차례나 오갔다. 이 과정에 벨트갱으로 물길을 낸다면 새로운 배수갱을 건설하지 않고도 자연흐름식으로 배수문제를 풀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즉 벨트콘베아가 지나간 옆으로 배수로를 내고 물을 뽑아내자는것이였다.

타당성이 있었다. 현재 운영하고있는 벨트갱과 새로 건개하는 갱사이의 각도와 높낮이조절 등 시공을 잘하면 자연흐름식배수를 능히 할수 있다는 과학적근거가 있었던것이다. 그리하여 자연흐름식으로 배수를 할수 있게 굴진을 진행할데 대한 안이 결정되고 일군들은 해당 부문 일군, 기술자들의 적극적인 방조를 받으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갔다.

일군들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들에도 깊은 주의를 돌리였다.

만일 장마철에 불어난 많은 량의 물이 벨트갱 한곳으로 모여든다면 설비들이 피해를 입을수 있었다.

일군들은 사색을 보다 깊이 하였다. 이 과정에 신설하는 갱과 벨트갱의 곳곳에 펌동소들을 증설하거나 정비하여 그곳으로도 도중도중 물을 뽑으면 물량을 조절할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였다. 이에 따라 면밀한 계획이 세워졌다.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탄광일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새는 굴진력량편성에서도 발휘되였다.

우선 새로운 갱굴진에 탄광의 기술일군을 책임자로 내세웠다. 기술과 능력이 있는 적임자를 내세우는것은 공사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중요한 하나의 방도였다. 이와 함께 경험이 많고 기능이 높은 굴진공들을 선발하여 돌격대력량을 보강하였다.

탄광일군들은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를 갖추는것으로 그치지 않고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나갔다.

현행생산지휘를 하는 긴장한 속에서도 굴진전투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모든 공정이 성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대중은 지휘관을 닮는 법이다. 공사에 동원된 탄부들 모두가 높은 책임성, 기술기능을 발휘하며 굴진을 마지막까지 계획대로 진행하였다. 결과는 어떠했는가.

탄광에서는 새 탄밭개발로 막장들이 늘어났지만 단 한대의 뽐프도 리용하지 않으면서 생산조건을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이로써 탄광에서 얻고있는 리득은 적지 않다.

뽐프구입과 정상가동에 드는 로력, 전력, 자재 등 많은것이 절약되고 그것은 곧 다른 설비들의 정비보강 등에 돌려지고있다.

남양탄광 일군들의 사업경험은 자기 단위의 생산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혁신적으로 일판을 전개해나갈 때 석탄생산을 늘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명춘길

능률적인 막장설비 제작도입

명학탄광에서

명학탄광에서 만곡굽개식콘베아를 제작도입하여 석탄생산성과를 확대하고있다.

탄광의 기술자들이 해당 부문 연구사들과 합심하여 만들어낸 만곡굽개식콘베아는 탄상조건이 불리한 갱막장들에서도 석탄채취률을 높일수 있는 능률적인 설비로 평가받고있다.

이 설비로 작업을 진행하면 종전에 리용하던 콘베아에 비해 로력은 절반이상으로 줄이면서도 석탄운반량을 1.5배로 늘일수 있다고 한다. 설비의 설치와 해체, 이동이 매우 편리하게 설계되였다. 현재 탄광의 1갱에서 석탄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탄광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만곡굽개식콘베아의 제작도입을 올해중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기술혁신과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일군들은 기술기능이 높은 기술자, 기능공들로 4.15기술혁신돌격대력량을 보강하고 그들이 기술혁신전투를 맹렬히 벌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여러가지 조건보장을 앞세우고 기술혁신돌격대원들과 함께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을 기울이면서 기술혁신전투가 더욱 활기있게 진행되도록 떠밀어주었다.

기술자, 기능공들은 해당 부문 연구사들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설비제작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해나갔다.

공무부문의 로동자들은 자력갱생정신으로 많은 자재와 부속품들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하여 설비제작에 크게 기여하였다.

결과 탄광에서는 공화국창건일혼돐을 맞으며 능률적인 설비를 만들어내게 되였다.

탄광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만곡굽개식콘베아를 확대도입하여 석탄생산을 더욱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탄광들에 필요한 설비들을 제때에 보내줄 열의에 넘쳐있다.
—정양탄광기계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남덕청년탄광에서

남덕청년탄광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해당 부문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다기능화된 관성식적재운반설비를 제작하여 막장에 도입하였다.

현재 탄광에서는 관성식적재운반설비를 6갱에 받아들여 석탄생산에서 그 맥을 보고있다. 이들이 제작도입한 적재운반설비는 변화되는 막장조건에 맞게 설치운영할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되였다. 이동전개가 편리하고 로력을 훨씬 절약할수 있다고 한다.

특히 제작원가가 적은 이 설비로 작업을 진행하면 석탄채취률을 종전보다 더 높일수 있는것으로 하여 광폭식채탄공법도입에서 리용가치가 큰것으로 인정되고있다.

탄광당조직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을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술혁신전투에로 불러일으키는 침입식사상공세를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일군들은 새로운 설비제작에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보장을 앞세우면서 기술자, 기능공들의 투쟁을 적극 떠밀어주었다.

석탄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것이 자기들의 역할에 달려있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은 이곳 기술자, 기능공들은 능률적인 설비를 자체로 제작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를 벌리였다. 이들은 련관부문의 과학자,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면서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을 기울여 다기능화된 관성식적재운반설비를 만들어냈다.

남덕청년탄광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석탄생산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된 관성식적재운반설비를 더 많이 만들어 막장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위훈으로 빛내인 24시간

천성청년탄광 8갱 채탄2중대의 탄부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 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불굴의 공격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는 지하전초병들속에는 천성청년탄광 8갱 채탄2중대의 탄부들도 있다.

얼마전 새로운 채탄장에로 이동하던 때에 있은 일이다.

막장장비들을 옮기고 버력을 처리한 다음 석탄생산에 진입하자면 힐잡아 닷새가 걸려야 하였다.

그 닷새를 놓고 탄부들의 생각은 깊었다. 어떻게 하면 한시바삐 이동전개를 끝내고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할수 있겠는가.

스스로 제기한 물음앞에 탄부들의 심장은 하나로 세차게 고동쳤다.

석탄생산의 동음을 심장의 박동처럼 생각하자, 모두 떨쳐나두고, 세월의 일을 해제끼자.

탄부들의 불같은 맹세가 갱막장을 찌렁찌렁 울리였다.

즉시 온 중대가 이동전개를 보다 앞당기기 위한 결사전에 나섰다. 막장장비들을 어깨에 메고 등에 지고 내달리는 탄부들, 어떤 육중한 장비들은 여럿이 한몸이 되여 그대로 떠받들고 전진하였다.

그런데 탄부들의 앞길에 뜻밖의 정황이 조성되였다. 갑자기 석수가 터졌던것이다. 순식간에 막장을 삼켜버릴듯 위협하는 석수와 함께 천정에서는 버력들이 후두둑 떨어져내렸다. 이것은 붕락을 예고하는 신호였다.

안타까움에 젖은 탄부들의 눈빛이 일시에 위험구간에 쏠리였다. 아직 옮기지 못한 몇개의 장비들이 그속에 남아있었던것이다.

이때였다. 누군가 위험구간으로 용약 뛰여드는 사람이 있었다. 당세포위원장 박영식동무였다.

그의 뒤를 따라 앞을 다투어 모두가 서슴없이 막장장비를 구원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결사관철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탄부들은 불길을 돌리기 위한 전투를 벌리는것과 함께 지압이 심리는 곳에 동발들을 보강해나갔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치렬한 한초한초가 흐르는 속에 불길이 돌려지고 동발과 함께 기둥처럼 버티고 선 탄부들사이로 장비들이 하나, 둘 빠져나갔다.

온몸은 땀과 석수에 흠뻑 젖었고 피로가 겹쌓였으나 탄부들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또다시 버럭처리전투에 나섰다. 많은 량의 버력을 처리해야 채탄작업을 진행할수 있었던것이다.

동무들, 석탄생산성과로 당에 충정의 보고를 드리자.

힘찬 화선선동으로 모두의 심금을 울리며 대오의 앞장에 선 탄광일군들의 뒤를 탄부들이 따라나섰다.

온 막장에 계속혁신, 련속공격전의 기상이 나래쳤다. 번개같이 삽질을 해대는 채탄공들, 버력이 가득 쌓인 탄차를 《영차, 영차》 힘있게 밀고나가는 탄부들…

혁명의 매 년대들마다 석탄증산으로 당을 결사옹위해온 전세대 탄부들의 투쟁정신, 투쟁본때로 오늘의 증산돌격운동에서도 승리자가 될 불같은 열의는 중대원들에게 그 어떤 난관도 뚫고나가게 하는 크나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일자리가 록록 나고 막장전개시간은 닷새로부터 하루로 앞당겨졌다.

결과 이들은 새로운 전투진지를 차지하고 석탄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게 되였다.

지금 8갱 채탄2중대의 탄부들은 증산돌격운동의 앞장에 선 불같은 열의안고 석탄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새 세기 혁명정신, 새로운 시대정신창조의 기상 세차게 나래치는 백두전역

삼지연군꾸리기전투장에서

기수의 보폭에 대오의 전진속도가 달려있다

성, 중앙기관려단 일군들의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당과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대중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고 능숙하게 이끌어나가는 대고조시대의 참된 지휘성원이 되여야 합니다.》

216사단 성, 중앙기관려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백두전역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이들은 근 70개 대상의 살림집 및 공공건물건설과 개건보수, 구획도로형성과 지대정리를 비롯한 많은 공사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여 우수한 단위로 자랑떨치였다.

하다면 이곳 지휘관들이 공사의 성과적추진을 위해 중점으로 내세우는 문제는 무엇인가.

삼지연군꾸리기전투를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정치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밀고나가는것이다.

지난 9월 사단적으로 마감단계의 공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였다.

려단앞에는 보통때의 몇배에 달하는 전투목표가 나섰다.

려단정치부 일군들은 사상전의 집중포화를 퍼붓여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키기로 하였다. 수십개 작업공정들이 추진되는 현장마다에서는 돌격대원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려단과 련대, 대대정치일군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한편 모든 정치일군들이 어려운 모퉁이를 하나씩 맡고 걸린 고리를 능숙히 풀어나갔다.

공사의 전과정을 정치사업으로 일관시키는 불씨는 이렇게 지펴졌다.

또 한가지 강조할 문제가 있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것이다.

시공단위들간에 경쟁이 고조되면서 일부 단위들이 뒤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휘관들은 이 문제를 료해분석하는 과정에 그 단위들에서 맡은 대상에 대한 깊은 파악과 건설경험이 부족하여 실적을 내지 못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마감공사조건에 맞는 해당한 기능공력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것이다.

려단지휘관들은 단위별협동을 중시하여 앞선 단위들이 뒤진 단위들에 기능공력량을 보충해주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결과 뒤진 단위들에 기능공력량이 보강되고 앞선 단위들을 따라잡는 명렬한 추적전이 벌어지는 속에 려단적인 공사실적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방대한 지대정리를 할 때에도 려단의 지휘관들은 당정책적요구대로 인해전술이 아니라 중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일수 있는 최선의 방도를 찾고 전투적인 작전을 펼치였다. 여러 개소에 배치된 중기계들을 지대정리현장들에 집중시켜 단위시간에 높은 능률을 낼수 있게 함으로써 수만㎥에 달하는 토량을 불과 며칠만에 처리할수 있게 되였다.

단 3일동안에 중요도로보수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고 한달동안에 10여동의 공공건물과 백수십세대분에 해당한 살림집건물들의 외력부사세솔작업, 근 1만개의 각종 건구설치와 타일붙이기, 지대정리, 도로보수를 비롯한 방대한 전투과제들이 지휘관들의 혁신적인 사색과 완강한 실천력에 의해 원만히 수행되였다.

려단의 지휘관들이 건설대상을 맡으면 예견성있게 설계단위와 협의하고 치밀한 공정계획을 세운 다음 자재확보와 그 수송문제에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는 일본새도 본받을만 한것이다.

려단에서는 그 어떤 공사에 앞서 필요한 자재를 생산단위와의 긴밀한 협동밑에 무조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의 공사준비까지 앞질러가며 갖추고있다.

오늘날 사단적으로 공사실적이 우수한 단위들, 현색부사에 의한 부사세솔방법을 도입하는 등 기술혁신운동에서 앞선 단위들이 수두룩한 사실, 그쯘히 갖추어진 고기와 알, 남새생산기지며 잘 꾸려진 청양소 등은 려단의 전투력이 어떤 높이에 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전진하는 대오의 기수된 높은 자각밑에 혁명적인 일본새를 발휘하고있는 려단지휘관들의 투쟁기풍은 본받을만 한것이다.

크나큰 믿음에 보답할 일념안고

618건설려단에서

삼지연군꾸리기전투장에서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는 위훈의 창조자들속에는 618건설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창한 투쟁에서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대단히 큽니다.》

돌이켜보면 려단이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50여동의 살림집과 10여동의 공공건물들을 일떠세워야 할 공사장은 야산우에 있었고 건물들의 기초공사를 진행하자면 수십만㎥의 막토를 처리해야 하였다. 이것은 다른 려단들에 비해 몇배에 달하는 작업량이였다. 이렇게 아름찬 공사량에 비해 지휘력량과 기술력량, 시공력량은 부족하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일부 지휘관들은 자체력량과 건설수단을 가지고는 어렵도 없다고 동요하였다.

린접단위들에서 기초공사를 끝내고 골조공사가 한창일 때 온 려단이 한달이상 기초공사를 진행한 사실만 놓고서도 공사가 얼마나 아름찼겠는가를 충분히 가늠할수 있다.

하다면 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과연 어떤 정신력으로 투쟁해왔던가.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전구를 꾸리는 투쟁에 남먼저 내세워주신 돌격대이다. 리명수와 로태지구, 대홍단군을 비롯한 혁명의 전구를 꾸리던 기상과 본때로 삼지연군전실에서도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자.

려단의 지휘관들과 시공단위 전투원들은 이런 불같은 일념을 안고 치렬한 돌격전을 벌리였다.

방대한 토량처리와 기초과기 전투로 낮과 밤이 따로 없었던 그때 과연 그 누가 감탕에 젖어드는 옷자락을 의식했던가. 그 누가 육체적힘의 한계를 생각하며 물러설 자리를 찾았던가.

치렬한 격전이 벌어지던 나날에 자강도, 함경남도련대 전투원들은 구통지대에서 전과를 무쩍 확대하였다.

정지대에 배치된 린접단위들에서 기초구간가까이에 물전기재로 세멘트와 골재를 보장할 때 려단이 맡은 건물공사구획들에는 많은 박토가 쌓이있어 기초구간까지 물전기재를 접근시킬수가 없었다.

그러나 물전기재가 오갈수 있게 토량이 처리될 때까지 기다릴수 없다는것이 려단전투원들의 생각이였다.

그들은 매일같이 수십리구간을 오가면서 인력으로 세멘트와 골재를 운반하기 위한 전투에 뛰여들었다.

굴착공사때에는 기초구뎅이가 깊어 허물어지기를 그 몇번, 이렇게 형성한 기초구간에서 하나하나의 콩크리트구조물을 형성하던 과정에 누구나 힘에 겨워 지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백두전역의 용사들이라는 각오밑에 견인불발의 투쟁을 벌리는 돌격대원들에 의해 날마다 혁신이 창조되였고 건물들의 골조는 시간을 다투며 솟구쳐올랐다.

지난 3개월 남짓한 기간 치렬한 공격전을 벌린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려단은 수십동의 살림집과 큰 규모의 공공건물들을 보란듯이 일떠세우고 지난 9월에는 앞선 단위들의 수준에 당당히 들어섰다.

착공후 려단의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이 위훈창조로 새겨온 나날도 벅차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귀중한것은 우리 당에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드릴 일념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을 떨쳐가는 나날에 돌격대원들모두가 담력도 배짱도 백두산을 닮아가는 바로 이것이다.

하기에 우리는 확신한다.

영예로운 대건설전투의 참전자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에 높은 공사성과로 보답해가는 이런 충정의 대오가 있기에 머지않아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 로동당시대의 문명이 웅축된 산간의 리상도시가 훌륭히 일떠서게 되리라는것을.

불가능을 모르는 자력갱생의 강자들

백두산영웅청년려단 강원도련대에서

백두산영웅청년려단 강원도련대가 다시 새로 조직된것은 몇달전이다. 하지만 련대는 벌써 자기의 위력을 당당히 시위하며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그처럼 짧은 나날에 련대를 전투력있는 집단으로 만든 원천은 무엇이였던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것도 많고 없는것도 적지 않지만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면 뚫지 못할 난관이 없으며 점령 못할 요새가 없습니다.》

가설병실도 없이 눈관우에 배낭을 풀어놓고 전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하여도 련대지휘관들과 대원들의 위구심은 컸다. 지휘관으로부터 대원들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이 건설에서는 신입생이나 다름없었고 자재는 물론 기공구와 설비, 물전기재마저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못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적은 인원으로 3동의 소층살림집건설공사를 진행한다는것은 실로 헐치 않은 일이였다.

하지만 그들은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우리는 열걸음, 백걸음을 달리자고 웨치며 곡괭이와 삽으로 땅을 뚜져내고 마대로 흙을 져나르면서 기초굴착작업을 드세게 다그쳤다.

어느날 깊은 밤 1대대가 맡은 작업구간을 돌아보던 리명식정치부장의 귀전에 난데없이 기계소리가 들려왔다. 급히 달려간 그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크지 않은 과괴기가 기운차게 돌아가고있었다. 대대장과 대원들이 힘과 지혜를 합쳐 만들어낸 과괴기였다. 이윽토록 과괴기를 쓸어보는 그에게 대대장과 대원들이 신심에 넘친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젠 무엇이든지 제힘으로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련대의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을 발휘하며 공사속도를 1.5배로 높이였다.

지난 8월 수십일간에 걸쳐 련대에서 진행된 대대, 소대별 미장경기를 통하여 자체의 기능공대렬은 더욱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련대의 전투장 그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절약함들은 한g의 세멘트, 한개의 철근콩다리도 절약하여 효과있게 리용하려는 돌격대원들의 깐진 일본새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자체로 꾸린 후방기지에서 짐짐승을 길러 단단히 덕을 보고 부업밭에서 가꾼 농산물들이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광경은 또 얼마나 흐뭇한것인가.

새 세기 혁명정신, 새로운 시대정신이 창조되고있는 백두전역에서 이런 자력갱생의 강자들이 자라고있다.

— 조선인민군 장일수소속부대에서 —

혁신창조의 앞장에 우리가

922건설려단 평양시련대 만경대구역대대에서

922건설려단 평양시련대 만경대구역대대가 2동의 소층살림집건설공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의 도리를 다하여 장군님을 충정다해 모셔야 하며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합니다.》

지난 5월초 살림집건설공사에 진입한 만경대구역대대앞에는 난관들이 가로놓여있었다. 물전기재도 부족했고 로력도 긴장한 상태였다.

바로 이런 때였다.

만경대구역당위원회 일군과 함께 새로 보충되는 돌격대원들이 들어서고 건설자재와 지원물자를 가득 실은 자동차들이 잇달았다.

헐어질듯 달려온 돌격대원들의 손을 뜨겁게 잡으며 구역당 일군인 한성일동무는 젖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만경대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사는 구역의 일군들과 인민들이 떨쳐나 이렇게 많은 자재와 지원물자들을 보내주었소.》

그 불같은 지향을 가슴속에 소중히 새겨안고 대대의 전투원들은 날과 날을 혁신과 위훈으로 수놓았다.

기초굴착공사는 말그대로 자연과의 힘겨운 전투였다. 작업현장이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하다보니 기초구뎅이에 계속 물이 차올랐다.

돌격대원들은 여러대의 양수기를 설치하고 물을 퍼내면서 작업을 한시도 중단하지 않았다.

한달동안에 방대한 량의 기초굴착과 기초콩크리트치기를 끝낸 그들은 더욱 기세를 올리며 골조공사에 진입했다.

봉사건물의 장식기둥들을 세울 때였다. 장식기둥들을 다 세우자면 며칠은 실히 걸려야 했다. 대대장 리인석동무가 장식띠를 따로 만들어붙이는 방법이 아니라 장식휘틀을 제작하여 단번에 기둥을 완성하면 공사기일을 훨씬 앞당길수 있다는 안을 내놓았다.

결과 대대에서는 수십명의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하루동안에 장식기둥들을 모두 세우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혁신의 앞장에 우리가 있다. 이런 피더운 심장의 웨침을 한껏 떠치며 대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오늘도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특색있게 일떠서는 고층살림집들

삼지연읍지구에 10여동의 고층살림집을 일떠세우기 위한 공사가 적극 추진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 삼지연군안의 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면서 건물들의 층수에서 높낮이차이를 더주어 소층, 다층의 배합을 실현하며 다층살림집들과 봉사시설들을 조화롭게 련결하여 건물들사이 예술적호상성, 호환성, 련결성을 보장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삼지연읍지구의 여러 다층살림집증축공사가 완공되면 산간문화도시의 소층, 고층건물들이 다양한 조화를 이루며 예술적조형화가 흠잡을데 없이 실현되게 된다.

618건설려단아래 여러 단위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함경남도련대 장진군대대와 성천강구역대대, 자강도련대 초산군대대에서는 많은 량의 흔석과 블로크를 자체로 해결한 성과에 토대하여 살림집골조증축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였다.

922건설려단에서도 이미 여러동의 건물골조증축공사를 결속한데 이어 나머지대상에 로력과 건설기계를 집중하여 공사를 빠른 속도로 다그치고있다.

려단아래 평양시련대에서는 강남군대대가 맡은 건물골조증축공사를 남먼저 끝낸데 이어 대성구역대대가 맡은 살림집골조증축공사에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평안북도련대, 황해남도련대에서는 지휘관들이 공사장을 타고앉아 전투지휘를 박력있게 하면서 난관을 극복하고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백두산영웅청년려단에서도 살림집증축공사에 력량을 집중하여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18일 단마르크의 공산당 위원장일행, 몽골 몬짜메통신사 사장일행, 주체사상연구 네팔사회주의기자연단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손님들은 혼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중앙산업미술전시회 폐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을 맞으며 지난 9월 5일에 개막되였던 중앙산업미술전시회가 폐막되였다.

전시회기간 중앙과 지방의 기관, 기업소들을 비롯한 450여개 단위에서 1만 1000여명의 일군들과 각계층 근로자, 청년학생들이 참관하였다.

산업미술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날로 높아가는 속에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척후대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는 주체적산업미술의 발전면모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조형화, 예술화와 간결성, 집중성, 상징성이 보장되고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미감에 맞으면서도 현대감이 나게 창작된 궤도전차도안, 화장품도안, 가방, 의상도안 등이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폐막식이 18일에 진행되였다.

내각부총리 리주오동지, 관계부문, 산업미술부문 일군들, 창작가, 교원, 연구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폐막사를 리주오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산업미술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들이 높은 실력과 불타는 창작적열정을 지니고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특색있고 훌륭한 명도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을 적극 추동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동포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8일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태양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평양국제록색건재 및 가구전람회가 진행된다

평양국제록색건재 및 가구전람회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된다.

우리 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회사들이 참가하는 전람회에는 록색건재, 에네르기절약형건재, 음향건재, 가구, 건구 등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한 건재 및 가구제품들이 출품된다.

전람회는 록색건재와 가구공업분야에서 나라들사이의 경제적협력과 과학기술교류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다.

몽골 몬짜메통신사 사장일행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바담도르진 간치메그 몽골 몬짜메통신사 사장과 일행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대대로 애국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혁명의 큰뜻을 키우시며 성장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만경대일가분들의 고귀한 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돌아보았다.

손님들은 또한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국가선물관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3돐에 즈음하여

팔레스티나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조선로동당창건 73돐에 즈음하여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싼 주조 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가 18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수용동지와 문화상 박춘남동지, 조선팔레스티나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위원장인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 주영길동지,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팔레스티나대사관 성원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싼특명전권대사는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국가건설을 위한 영광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놓은 조선로동당은 김정은원수각하의 령도따라 계속 전진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화고한 립장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그는 위대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에게 복리와 진보, 번영이 있기를 축원하였다.

리수용동지는 우리 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더욱 찬연히 빛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과 팔레스티나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과 련대성의 관계는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마흐무드 아빠스대통령각하의 관심속에 끊임없이 강화발전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마흐무드 아빠스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인민과 팔레스티나인민사이의 불패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모두다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푸른 숲이 전하는 아름다운 삶의 노래

운산군산림경영소 북진로동자구 산림감독원 강영수동무에 대한 이야기

운산군 북진로동자구에는 잣나무와 가래나무, 이깔나무, 밤나무, 단나무 등이 산발마다에 무성한 숲을 이룬 눈뿌리아득한 유용동물보호구가 있다.

그 숲을 가꾼 주인공이 바로 운산군산림경영소 북진로동자구 산림감독원 강영수동무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강영수동무는 조선예술영화 《숲은 설레인다》의 원형인 우리 나라의 첫 공훈산림공 강을경의 아들이다. 전후 재가루만 날리던 조국산천을 소중히 품어안고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푸른 숲을 가꾼 아버지의 넋을 참되게 이어가고있는 강영수동무.

지난 10여년간 가족소대를 맺고 수천정보의 산림을 무성하게 가꾸며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빛내여가고있는 그의 공적도 자랑할만 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의 가슴을 흔드는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세대를 이어 줄기차게 계승되는 애국의 넋이고 슬기이다.

이 한몸 뿌리가 되여서라도

10여년전 운산군 북진로동자구의 한 산발을 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당시 운산군의 어느 한 제신분소 분소장으로 사업하던 강영수동무였다.

산발들을 돌아보는 그의 마음은 남매이를 안은듯 했다. 고난의 행군을 겪다보니 무성하던 푸른 숲은 점점 빛을 잃고있었다.

그의 귀전에 침상에서 형이 안타깝게 토로하던 목소리가 울려왔다.

《영수아, 온 나라가 다 아는 공훈산림공의 자식들이 편히 살아있으면서도 숲을 지켜내지 못하고있으니 당앞에 정말 면목이 없구나.》

강영수동무는 병석에서 기진해가는 힘을 모아 형이 자기의 손에 꼭 쥐여주던 보물이인 수첩을 꺼내들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산림감독원이 된 형이 북진로동자구의 산림조성실태를 기록하며 애용하던 수첩이였다.

형의 땀과 열정이 슴배인 그 수첩을 펼치던 강영수동무는 무춤 굳어졌다. 조선예술영화 《숲은 설레인다》에서와 같이 조국의 산과 들을 푸른 숲으로 뒤덮이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가 그의 심장을 광광 울려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높이 치하해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시는 북진로동자구의 산은 황금산, 보물산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내가 딛고선 이 산을 두고 《숲은 설레인다》의 원형인 우리 나라의 첫 공훈산림공 강을경의 아들이다. 전후 재가루만 날리던 조국산천을 소중히 품어안고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푸른 숲을 가꾼 아버지의 넋을 참되게 이어가고있는 강영수동무.

지난 10여년간 가족소대를 맺고 수천정보의 산림을 무성하게 가꾸며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빛내여가고있는 그의 공적도 자랑할만 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의 가슴을 흔드는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세대를 이어 줄기차게 계승되는 애국의 넋이고 슬기이다.

이 한몸 뿌리가 되여서라도

10여년전 운산군 북진로동자구의 한 산발을 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당시 운산군의 어느 한 제신분소 분소장으로 사업하던 강영수동무였다.

산발들을 돌아보는 그의 마음은 남매이를 안은듯 했다. 고난의 행군을 겪다보니 무성하던 푸른 숲은 점점 빛을 잃고있었다.

그의 귀전에 침상에서 형이 안타깝게 토로하던 목소리가 울려왔다.

《영수아, 온 나라가 다 아는 공훈산림공의 자식들이 편히 살아있으면서도 숲을 지켜내지 못하고있으니 당앞에 정말 면목이 없구나.》

강영수동무는 병석에서 기진해가는 힘을 모아 형이 자기의 손에 꼭 쥐여주던 보물이인 수첩을 꺼내들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산림감독원이 된 형이 북진로동자구의 산림조성실태를 기록하며 애용하던 수첩이였다.

형의 땀과 열정이 슴배인 그 수첩을 펼치던 강영수동무는 무춤 굳어졌다. 조선예술영화 《숲은 설레인다》에서와 같이 조국의 산과 들을 푸른 숲으로 뒤덮이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가 그의 심장을 광광 울려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높이 치하해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시는 북진로동자구의 산은 황금산, 보물산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내가 딛고선 이 산을 두고 과연 황금산이라고 당앞에, 후대들앞에 떳떳이 말할수 있는가.

군기앞에서 군인선서를 다진 어제날의 병사, 제대군관으로서, 공훈산림공의 아들로서 조국의 한 부분인 북진로동자구의 산을 다듬아낸 자기가 주인이 되여 가꾸어야 한다는 각오가 그의 가슴에 깊이 뿌리내리였다.

그의 어린시절과 중학시절의 많은 추억은 황금산, 보물산으로 온 나라에 소문났던 북진로동자구의 푸른 숲에 대한것이였다. 산의 어디에나 아버지를 따라 함께 걸은 그의 발자욱이 찍혀져있고 아버지와 함께 심은 나무들이 있다.

강영수동무가 학교에 갓 입학한 어느날 아침이였다.

달구지를 집앞에 들이댄 아버지는 어머니더러 이사짐을 싣자고 하였다.

어머니는 너무도 뜻밖의 일이여서 한동안 얼떠름해있다가 물었다.

《어디로 이사간단 말이예요?》

《잣나무골어귀에 집을 한채 마련했소.》

《아니, 거기가 어디게 아이들 학교를 문앞에 둔 집을 버리고 그 먼데로 간단 말이예요?》

아버지는 이윽토록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학교는 좀 멀어지지만 그대신 산은 가까와지지 않소. 이제는 아이들이 산을 알아야 할 때가 됐소. 저 산을 대를 이어 지켜가야 할 아이들이 아니요!》

이리하여 강영수동무는 부모형제들과 함께 산이 가까운 잣나무골어귀로 이사를 가게 되였다.

그때는 아이들이 산을 알아야 할 때가 됐다고 하던 아버지의 그 의미심장한 말의 뜻을 다는 알수 없었다. 하지만 인생의 선배들 다시 해야 하는 갈림길에서 강영수동무에게는 산을 알아야 한다고 하던 아버지의 그 말이 다름아닌 한그루 나무의 귀중함을 알고 고향을 알아야 참된 애국자가 될수 있다는 전세대의 당부로 더욱 깊이 새겨졌다.

아버지의 넋이 깃들고 땀이 스민 정든 산발을 오래도록 바라보는 그에게는 군복을 입고 초소로 떠나던 날 아버지와 고락을 함께해온 마음의 한 로인이 들려주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어느날 당세포총회에 참가했던 아버지는 전체 당조직들과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전달받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편지에서 놈들이 최후발악적으로 심현해보려고 미쳐날뛰는 《신공세》에 대처하여 전체 당원들이 마지막피 한방울까지 다하여 조국의 촌토를 수호할것을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뜨거운 심장에 받아안은 아버지의 가슴에서는 피가 끓었다.

(산과 나무가 불타고 온 나라가 불바다에 잠겼는데 이런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수령님께서는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결전에로 전당, 전국을 부르시는데 이런 때에 당원은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당시 양모공이였던 그는 당세포위원장에게 제기하였다.

《북진마을 산들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되여 아버지는 성한 땅보다 폭탄구뎅이가 더 많았던 북진로동자구의 황폐화된 산들을 맡아안게 되였다.

사실 아버지에게는 하고싶은 일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굳이 산림을 맡아안은것은 과연 무엇때문이였던가.

산림을 가꾸는 일, 그것은 조국의 래일을 위한 일,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일이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과업을 준 사람은 없었지만 스스로 그 멀고 험한 길에 삶의 리정표를 세웠던것이다.

강영수동무에게는 전선시찰의 길에서 무성한 숲을 이룬 병영구내와 주변의 산발들을 바라보실 때면 병사들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시며 그렇게도 기뻐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환하신 미소가 우렷이 어려왔다.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면 우리 장군님께서 듬성듬성 생땅이 드러난 이 북진로동자구의 산을 보신다면, 바로 이 산이 조선예술영화 《숲은 설레인다》가 태여난 산이라는것을 아신다면 하는 생각에 이르렀을 때 그는 저도모르게 소스라쳤다.

강영수동무는 당조직에 찾아가 절절히 제기하였다.

《북진로동자구의 산림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산림감독원이 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무참히 불타버린 산을 서슴없이 맡아나선 양모공이나 고난의 시기 빛을 잃어가는 숲을 스스로 맡아나선 그의 아들이나 그들은 다 같은 당원들이였다. 그들의 가슴속에는 똑같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당원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당과 수령의 뜻을 몸과 마음 다 바쳐 받들어야 한다는 고결한 충정이 간직되여있었던것이다.

푸른 숲에 새들이 찾아올적에

산림감독원이 되여 수천정보의 산림을 정작 맡아안고보니 생소한것이 많았다.

모르는것은 배우고 부족되는것은 어떻게 해서나 마련하면 되였지만 제일 문제로 된것은 산림을 맡아보아야 할 사람들이 안착되여 일하지 못하는것이였다.

당시 산리용반과 경제림작업반이 조직되여있었지만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때이다보니 남은 사람은 몇 안되는 가정부인들뿐이였다.

어느날 강영수동무는 형제들과 모여앉았다.

잠시 생각을 더듬던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십년전 어느해 봄 마을사람들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나무심기에 떨쳐나섰을 때였다.

그때 중학생이였던 강영수동무도 아버지를 따라 산에 올랐다.

나무심기를 끝내고 모두가 쉬고있을 때였다.

휘어든 애어린 이깔나무를 애기다루듯 곧추 려서 비끄러매는 아버지의 모습을 유심히 살려보던 강영수동무는 무심히 말했다.

《숱한 나무가운데 휘어든것도 있기마련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지금은 이래뵈도 자라면 다 기둥감이고 대들보감이다. 구부러진 나무야 아무데도 쓸모가 없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이 앞으로 이 숲의 참된 주인들이 되길 바란다.》

아버지는 그렇게 북진땅의 한그루한그루 나무에 정성을 쏟아부어 조국의 재부로 자래웠다. 그렇게 키운 나무들이 바로 푸른 숲을 이루었다. …

강영수동무가 들려준 이야기의 여운은 컸다. 나름대로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형제들을 바라보던 강영수동무는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나는 우리 형제들로 산림을 가꾸는 가족소대를 무었으면 한다. 그래서 우리모두가 아버지가 바라던대로 이 숲의 주인이 되면 좋겠구나.》

그의 진심을 알게 된 형제들은 한마음이 되여 가족소대를 무을것을 결의해나섰다.

그들이 가족소대를 무었다는 소식은 산리용반성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흩어져갔던 사람들이 한명, 두명 모여와 가족소대원들과 함께 산림조성에 떨쳐나섰다.

그들은 빈땅들을 찾아 돌을 들춰내고 거름지게를 지고 산으로 오르며 숲사이나무모밭을 하나하나 꾸려나갔다.

강영수동무는 하루종일 가족소대원들과 함께 힘이 진하도록 나무모밭을 가꾸다가도 종자구임을 위해서라면 수백리 밤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군 하였다.

그렇게 첫해에 한정보의 숲사이나무모밭이, 그 다음해에 또 한정보가 꾸려져 잣나무와 가래나무, 밤나무, 단나무, 이깔나무 등 실용적가치가 큰 나무모들이 뿌리를 내리게 되였고 그것들은 해마다 산으로 옮겨심어져 숲을 이루게 되였다.

강영수동무가 산중에 도라지와 만삼을 비롯한 약초밭들과 땔기밭도 함께 가꾸자고 하였을 때였다.

가족소대원들속에서는 입손도 나선 양모공이나 고난의 시기 빛을 잃어가는 숲을 스스로 맡아나선 그의 아들이나 그들은 다 같은 당원들이였다. 그들의 가슴속에는 똑같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당원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당과 수령의 뜻을 몸과 마음 다 바쳐 받들어야 한다는 고결한 충정이 간직되여있었던것이다.

그날 강영수동무의 등에서는 하루종일 거름지게가 내리워질줄 몰랐다. 땀거미가 질무렵 땀에 옷이 화락하니 젖은 그에게 다가와 가족소대원들이 어깨에서 지게를 내리워주려고 할 때 강영수동무는 조용히 말하였다.

우리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였던 북진로동자구의 산림이야 기름나무가 숲을 이루고 온갖 약초들이 무성한 황금산이 아닌가고.

주체66(1977)년 4월 강영수동무의 아버지가 산에서 자기 손으로 정성껏 심어가꾸어 삼가 올린 만삼 100만뿌리, 도라지 100만뿌리, 궁궁이 10만뿌리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공적을 높이 치하해주시면서 그 약초뿌리들을 각 지방에 보내주어 온 나라의 산들에 더 많은 약초밭을 조성하도록 해주시는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황금산!

이것은 산림감독원인 강영수동무의 목표였고 포부였다.

잣나무골에 흐르는 수정같은 실개천에 기름개구리들이 모여들고 버들치들이 올라와 꼬리치며 놀 때에도 누구보다 기뻐하며 즐겨 서식장도 마련해준 강영수동무였다.

어느해인가 그가 가족소대원들과 함께 애써 가꾸어놓은 나무모밭의 어린 나무모들이 산짐승의 피해를 받은적이 있었다.

산짐승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여느때없이 밝은 모습으로 방안에 앉아 톱이며 망치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었다.

잠시도 쉴념을 하지 않고 산에서 돌아오자바람으로 무지런히 일손을 놀리는 남편을 보고 안해 윤희동무가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다가갔을 때였다.

《우리 숲에 산짐승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소. 글쎄 그놈들이 우리 나무모밭을 습격했단 말이요. 그래서 지금 먹이덕대랑, 새둥지랑 만드는중이요. 먹이덕대 땔리는데 어지간히 산에 나무를 심은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그렇만도 했다. 몇달째 휴식일이 따로 없이 산에 오르며 바위같은 돌들을 들춰내느라 손끝에 피가 진 그들이였던것이다.

강영수동무(앞줄 가운데)

그날 아버지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시보군 하던 잣나무를 산마루에 오른 강영수동무의 가슴속에서는 이름할수 없는 격정이 솟구쳐올랐다.

(아버지, 북진로동자구의 산들은 오늘도 황금산, 보물산으로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지난해 5월 북진로동자구의 잣나무골에서는 마을사람들의 축복속에 강영수동무의 아들이 뜻깊은 결혼식을 하였다. 한쌍의 청춘남녀가 산에 올라 잣나무를 심는 모습은 산림감독원가정의 애국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고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준 뜻깊은 화폭이였다.

* *

당에서는 푸른 숲에 대를 이어 고귀한 헌신의 땀방울을 바쳐가는 강영수동무에게 공훈산림공칭호를 수여하도록 하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었다.

좋은 날에나 어려운 날에나 언제나 푸른 숲을 전세대의 고귀한 유산으로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국의 무강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한몸을 쌍그리 바쳐가는 강영수동무의 삶은 말해주고있다.

어느 부문, 어느 단위, 어느 일터에서나 당과 수령을 받들어 전세대들이 마련한 재부들을 더없는 유산으로 귀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여나가는것이 후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로 되며 바로 그렇게 될 때 조국은 더욱 부강해지고 우리 혁명의 명맥은 뭇뭇이 이어지게 된다는것을.

금 및 사진 본사기자 신현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요구에 맞게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해나가고있는 근로자들 —황해북도도서관에서—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중국대사관 성원들 택암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은래총리와 함께 택암협동농장을 방문하신 60돐과 조중 두 나라 친선협회결성 60돐에 즈음하여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18일 순안구역 조중친선택암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손님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은래총리와 함께 다녀가신 살림집을 돌아보았다. 이어 그들은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할 일념밑에 가을걷이를 다그치고있는 농장원들의 일손을 도왔다.

리진군특명전권대사는 두 나라 선대수령들께서 마련해주신 중조친선은 대를 이어 계승될것이라고 하면서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농장이 농업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한편 이날 김성주소학교에서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다녀가신 교실, 연혁소개실 등 학교의 여러곳을 돌아보고 학생들의 예술소품공연을 관람하였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도착

조선기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주체로 잇는 일조우호대표단 도착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오끼나와현학회 사무국 차장 신자또 마사다께를 단장으로 하는 주체로 잇는 일조우호대표단이 1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몽골농업 및 식료, 자연환경부문 근로자동맹대표단 귀국

오. 간토야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농업 및 식료, 자연환경부문 근로자동맹대표단이 18일 귀국하였다.

평양역에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상봉동지가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녀맹예술선동대경연 진행 ◎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서 ◇

얼마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서 녀맹예술선동대경연이 특색있게 진행되였다.

여러 도들에서 선발된 100여명의 녀맹예술선동대원들은 높은 사상예술성과 호소성이 강한 작품들로 경연을 진행하고 들끓는 건설장에서 경제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선식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 일터마다 혁명적열정과 증산투쟁으로 들끓고 창조와 혁신의 기백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경연기간 참가자들은 성, 중앙기관들과 각 도려단들에 나가 출근길선동과 경제선동을 벌리고 우수한 작품들로 총합공연을 진행하여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에 동원된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투쟁열의를 더욱 고조시키였다.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대교조전투장들마다에서 녀맹예술선동대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였다.

특히 녀맹중앙위원회에서는 이번 경연무대를 삼지연군꾸리기건설장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비롯한 대교조전투장들로 옮기고 경연을 특색있게 준비하는데 힘을 넣었다.

평양시와 각 도들의 당조직들에서는 녀맹예술선동대원들의 사업과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경연에 필요한 악기보장 등 경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 모든 작품들이 손색이 없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모든 녀맹조직들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해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치며 경연준비를 해나갔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서 진행된 녀맹예술선동대경연은 모든 작품들이 높은 사상예술성과 함께 전투성과 호소성이 천만히 보장된것으로 하여 건설자들속에서 호평을 받았다.

평양시와 각 도들의 당조직들에서는 녀맹예술선동대원들의 사업과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경연에 필요한 악기보장 등 경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 모든 작품들이 손색이 없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모든 녀맹조직들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해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치며 경연준비를 해나갔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서 진행된 녀맹예술선동대경연은 모든 작품들이 높은 사상예술성과 함께 전투성과 호소성이 천만히 보장된것으로 하여 건설자들속에서 호평을 받았다.

함경남도 신포시 포항동과 정안남도 평원군 음 녀맹예술선동대원들은 경연기간 건설현장에서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였다.

이들은 다채로운 종목들을 가지고 낮에 밤을 이어 힘찬 경제선동을 벌리면서 건설자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경연에 참가한 각 도 녀맹예술선동대원들은 건설자들과 함께 일도 하고 솜씨도 펼쳐놓고 성의껏 마련한 많은 지원물자들도 안겨주면서 힘과 용기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경연과정을 통하여 각 도 녀맹예술선동대원들의 예술선동활동수준은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투쟁열의는 더욱 고조되였다.

사상전선이 들끓는것만큼 대중의 정신력이 폭발하며 혁명이 전진한다는 신념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녀맹예술선동대원들이 벌린 경연과 예술선동활동은 건설에 동원된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특파기자

첫 《장백》호굴착기를 만들 때처럼

락원기계련합기업소 대형조기직장에서

업마전 우리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떨쳐나선 락원기계련합기업소 대형조기직장을 찾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람한 기계들이 동음을 울리고있는 직장에서는 유압식굴착기를 비롯한 대형기계의 부분품들의 가공과 조립이 한창이였다.

직장일군은 우리에게 증산돌격운동에 떨쳐나선 직장종업원들의 열의가 하늘을 찌를듯 하다고 하면서 우리를 여러 타닝반들이 들아가는 생산현장으로 이끌었다.

《이 타닝반들이 수십년전부터 오늘까지 혁신의 동음을 울리고있는 공로가 많은 기대들입니다.》

여러 기대공들이 자기들의 위훈에 앞서 기대들에 대한 자랑을 하는 모습이 참으로 돋보였다. 그들은 오랜 나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빛나는 위훈을 떨쳐온 그 기대들과 함께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한 오늘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보람찬 삶을 빛내여가고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첫 《장백》호굴착기가 태여나던 때의 일을 삼삼히 떠올렸다.

1960년대초 락원로동계급앞에는 채굴부문에서 절실하게 요구하는 대형굴착기를 생산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섰다.

대형굴착기생산에 떨쳐나선 락원로동계급은 점쌓이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과감히 극복해나감으로써 백날이라는 짧은 기간에 첫 《장백》호굴착기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 만든 대형굴착기앞에 이르시여 참으로 대단한것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훌륭한 대형굴착기를 만들게 되였으니 우리의 기술수준이 얼마나 발전하였는가고 하시면서 만족을 금치 못하시였다.

천리마대고조시기의 락원사람들처럼 당이 준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여 당과 수령께 기쁨과 만족만을 드리려는것이 직장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심장속에 끓어번지는 숭고한 지향이였다.

하기에 직장의 오랜 조립공들은 기술혁신에 힘을 넣어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하던 유압식굴착기의 한 부분품조립을 단번치기로 할수 있게 하는 새 방안을 내놓아 생산성을 훨씬 높이였다.

직장의 청년작업반의 오랜 선반공들은 말은 과제들을 선참으로 끝내고 새로 입직한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기술기능수준도 높여주고 그날계획은 그날중으로 어김없이 끝내는 락원로동계급의 숭고한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자기들에게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심장속에 간직한 락원사람들은 공장의 전세대들처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충정다한 의지를 안고 오늘도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본사기자 허명숙

후방가족들의 진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보위에 최대의 애국이 있습니다. 조국이 있어 당도 정권도 있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도 인민의 행복한 생활도 있는것입니다.》

구장군원천통천사업소에는 인민군대후방가족들이 많다. 그들은 모두 집단이 자랑하는 혁신자들이다.

지배인 송봉렬동무며 지창세, 류용분동무를 비롯한 후방가족들은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것을 더없는 자랑으로 여긴다.

그들은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조국의 귀중함을 알고 조국을 위해 자기를 바칠줄 아는 참된 인간이 되도록 품을 많이 들였다. 부모들의 꾸준한 교양과 혜빛밝은 교정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며 자식들은 사회주의조국의 고마움과 조국보위에 최대의 애국이 있음을 가슴깊이 새기였다. 하기에 자식들은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청춘의 설자리를 조국보위초소로 정하고 전선행렬차에 몸을 실었다.

후방가족들은 그것으로 자기의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주 자식들에게 고향의 소식과 군사복무의 나날을 위훈으로 빛내이라는 당부가 적힌 편지를 보내였고 후방가족답게 혁명과업수행에 헌신하면서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였다.

한 비행사가족을 성심성의를 다하여 도와주고있는 사실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해마다 텔감이며 김장남새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구석구석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고있는 그들의 진정에 비행사의 안해는 한두번만 눈시울을 적시지 않았다.

후방가족들의 따뜻한 사랑과 정은 군에서 살고있는 한 영예군인의 생활에도 따스히 스며들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여년을 자기를 위해 지성을 다하는 후방가족들의 모습에서 영예군인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페부로 절감하였으며 혁명의 꽃을 붉게 피워갈 결의를 가다듬었다.

본사기자

절세위인을 높이 모신 한없는 민족적긍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출중한 정치실력에 의해 조선반도정세는 새로운 궤도에 올라섰다. 오래동안 파국에 처하였던 북남관계에서는 민족적화해와 평화의 새시대가 열려지고 가장 적대적인 조미관계에서도 진전이 이룩되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새겨안으시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북남관계와 조미관계에서 격동적인 사변들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해내외의 우리 겨레는 다함없는 경모심을 금치 못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온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을 앞당겨나가는데서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책임을 다할것입니다.》

랭전의 산물인 민족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가시고 겨레에게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조국을 안겨주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이다. 그이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과감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였기에 대결과 적대의 악화일로를 걷던 북남관계는 드디여 화해와 단합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였고 이 땅에는 평화와 통일의 따뜻한 봄기운이 어리기 시작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민족분렬의 쓰라린 아픔을 화창한 4월의 봄계절과 더불어 흩날려버리시며 대결과 적대의 상징으로 되여온 판문점에 거룩한 자욱을 새기신것은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일대 장거였다. 그이의 확고한 통일의지와 한없이 뜨거운 민족애, 대범한 결단에 의해 마련된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은 온 민족과 세계를 격동시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분렬과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민족적사명감과 의무를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고 하시면서 오늘 그 새로운 력사를 써나가는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쏜다는 마음을 안고왔다고 말씀하시였을 때 누구나 그이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뜻에 감복하여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에서 과시된 절세위인의 탁월한 정치실력과 비범한 풍모는 또 얼마나 세인의 경탄을 자아냈던가.

당시 그 력사적화폭을 지켜본 남조선과 세계 여러 나라들의 언론, 전문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계 각국의 국가수반들을 뛰어넘는 탁월한 전략과 협상술을 보여주시였다고 격찬하면서 그이께서 수뇌회담의 장소를 분렬과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으로 정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시고 상상을 뛰여넘는 파격적이고 대담한 제안, 그리고 친화적이고 겸손한 대화법, 여유를 잃지 않는 당당한 모습으로 남조선민심과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으셨다고 평하였다. 그러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파격적인 행동으로 순간에 판문점군사분리선을 무력화시키시고 활달한 필체로 방명록에 평화의지를 새겨주시였으며 재치있는 평양랭면 유모아로 좌중을 끌어당기시였다고 하면서 그 모든것은 전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고 전하였다.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에 참가하였던 남측관계자들도 《김정은위원장의 첫인상은 솔직담백하고 예의가 바른것이였다.》, 《대범한 기상과 대단한 결단력을 느끼였다. 정말 감격적인 모습이였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적풍모에 대한 자신들의 심정을 그대로 터놓았다.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후 한달만에 판문점에서 다시금 열린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통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과 념원을 한몸에 안으시고 애국의 대용단과 무한대한 포용력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력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시는 탁월한 위인이심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조선반도정세와 국제정치흐름을 주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위인상과 뛰여난 정치실력은 세계를 뒤흔든 력사적인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통해 뚜렷이 과시되였다.

세계가 공인한것처럼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조미사이의 극단적인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달라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는데서 특기할 사변이였다.

내외언론들이 《민족사와 세계사에 큰 획을 긋는 특대사변》, 《세계평화와 안정에 거대한 기여를 한 금세기 최대의 사변》으로 평가한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남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이 이룩되고있는 속에 진행된것으로 하여 평화와 번영, 통일에로 향한 조선반도의 정세흐름을 더욱 추동한 계기로 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올해 북남관계와 조미관계에서 일어난 극적인 사변들을 커다란 충격과 열광속에 목격하며 천리혜안의 예지와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민족의 운명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력사적장정의 보폭을 힘있게 내디디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한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페부로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신 후 하신 말씀은 오늘도 겨레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판문점선언 리행의 풍성한 수확을 안고 력사적인 선언에 서명한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선언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높뛰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의지로 불타는 겨레의 넋이 있으며 머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우리모두의 꿈이 담겨져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새겨안는 온 겨레가 자주통일, 평화번영에 대한 민족의 숙원을 풀어주실분은 경애하는 원수님뿐이시라는 확신을 가다듬었다.

우리 민족이 높이 받들어모신 절세의 위인에 대한 남녘의 경모심은 이렇게 울려퍼지였다.

《김정은위원장은 파격적이고 솔직한 발언과 대담하고 거침없는 행동, 뛰기 웅변과 유모아감각 등 예상을 뛰어넘는 탁월한 외교술로 북남수뇌회담들을 세기적인 회담으로 성공시키시였다.》, 《김정은위원장이 갖추고있는 전략적인 외교협상력은 전세계의 외교협상력을 무색하게 할만큼 우수하고 탁월하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정은위원장은 북남수뇌회담들을 통하여 국제질서를 주도할수 있는 전략적이고 능숙한 지도자이라는것을 남김없이 보여주시였다.》…

정녕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의 새 력사를 열어놓으시고 자주통일의 빛나는 리정표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모두가 따르고 높이 받들어모셔야 할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그이의 숭고한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뜻과 의지에 무한히 고무된 해내외의 우리 겨레는 자주통일위업의 실현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본사기자 허영민

불멸의 꽃 김정일화전시회

중국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1돐, 조선로동당창건 73돐에 즈음하여 10일 중국 길림에서 김정일화전시회가 진행되였다.

활짝 피여난 태양의 꽃 김정일화들이 전시회장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전시회개막식에는 중국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들, 우리 나라 대표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중국 길림두삼경제무역공사 총경리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조선로동당의 70여년력사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줄기차게 전진시켜온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 여러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신것은 중조친선의 력사를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가실 의지의 표현으로 된다.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자욱이 아로새겨져있고 김정일동지께서 다녀가신 길림육문중학교에서 진행된 태양의 꽃전시회는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단결을 더욱 확대시키는 의의있는 계기로 될것이다.

한편 기네 꼬나크리에서는 김일성화온실참관식이 7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기네세관총국 부총국장은 깊은 감명속에 온실을 돌아보고나서 전 인도네시아대통령이 김일성주석께 그이의 존함을 모신 꽃을 선물로 올린 사실을 통해서도 주석이시야말로 만민이 흠모하고 따르는 절세의 위인이심을 잘 알수 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있는 조선인민은 정말 행복하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3돐과 조로외교관계설정 70돐 경축행사

로씨야에서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73돐과 조로외교관계설정 70돐에 즈음하여 11일 로씨야 모스크바에서는 우리 나라 도서, 사진, 우표 및 수공예품전람회개막식이, 울라지보스또크에서는 도서 및 사진전시회, 연회가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날로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 우표들과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행사들에는 로씨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들, 우리 나라 대표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스크바 국제법률대학 제1부총장은 조선로동당창건 73돐과 로조외교관계설정 70돐에 즈음하여 전람회가 진행되는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난 70여년간 조선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달성하면서 세계가 보란듯이 강대하고 문명한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고 발전시켜왔다.

로씨야인민은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모든 성과들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있다.

오랜 친선협조관계의 력사를 가지고있는 두 나라가 서방의 제재가 악랄해질수록 서로의 교류와 협조를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

통일로씨야당 연해변강지부 지역정치리사회 부비서는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가 설정된 때로부터 70년간 로조친선협조관계는 훌륭하게 발전하여왔다고 하면서 이 관계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울라드 홀데브》농공장 실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들의 공장을 찾으시였던 나날을 감회깊이 회고하고 오늘 조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우리는 조선에서 일어나고있는 모든것을 허심하게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모스크바에서는 조선영화상영주간개막식도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5.18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을 요구

남조선에서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평화당이 5.18진상규명위원회를 빨리 구성할것을 요구하였다.

이 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발표한 론평에서 5.18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대변인은 광주인민봉기자들에 대한 《계엄군》의 도청앞 집단발포 하루전인 1980년 5월 20일 이미 《자위권발동지시》가 내려져있었다는 사실이 력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고 하면서 이로써 광주인민봉기당시 《계엄군》의 도청앞 집단발포는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른것이였다는 전두환일당의 주장은 거짓이라는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광주대학살만행진상규명의 핵심사안인 발포명령과 관련한 구체적사실자료들이 속속 드러나고있는데도 전두환역도를 비롯한 사건관련자들은 증언을 거부하거나 진상을 은페하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5.18진상규명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재벌들의 전횡을 폭로단죄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가 전한데 의하면 민주로총과 민중공동행동이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두 단체는 지난 10일 《국회》앞에서 재벌개혁순회투쟁단의 활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들의 전횡을 끝장낼것과 로조의 권리보장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재벌은 《경제의 기둥》이 아니라 《경제를 병들게 하는 주범》이라고 하면서 재벌들은 현금성자산을 쌓아놓고있으면서도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불공정거래로 하청기업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또한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로동권을 짓밟고 로조파괴행위를 로골적으로 감행하며 로조활동을 벌린 로동자들의 권리를 빼앗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최저임금법》조작을 비롯하여 《로동법》개악을 주도하고있는것도 사실상 재벌자본이라고 하면서 그런데도 재벌우두머리들은 누구도 자기들의 죄값을 치르지 않고있다고 격분을 토로하였다.

기자회견참가자들은 《국회》가 제대로 된 재벌개혁에 나설것과 로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자주시보》는 재벌개혁순회투쟁단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매 재벌들의 전횡을 폭로단죄하는 규탄집회들을 벌릴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방송

공무원들의 부정부패행위를 폭로

10일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공무원들속에서 부정부패행위와 위법행위가 끊기지 않고있다고 한다.

최근 3년간 징계 등 처분을 받은 5급이상 공무원이 780여명에 달하였다고 하면서 방송은 부, 처별로는 법의 집행을 주관하는 법무부가 64건으로서 가장 많았고 치안을 맡고있는 행정안전부는 음주운전에서 최고건수를 기록했다고 전하였다.

방송은 또한 공무원들의 징계결정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보통 직장에서 같으면 해고되고도 남을 범죄행위들이 솜방망이처벌에 그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통일과 담을 쌓은 역적배들의 추태

지금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모든 정당들이 당리당략을 떠나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에 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런 속에 얼마전 남조선강원도와 경기도, 인천시 등 각 지방의 의회들도 《국회》가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미루는것은 민중의 의사와 념원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선언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그 무슨 《비핵화의 진전속도》와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비용문제》 등을 운운하며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는 《시기상조》라고 떠들어대고있다.

바로 이것을 통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그 리행을 가로막으려는 반통일역적배들의 속심을 잘 알수 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과 지맥을 잇고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주고있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판문점선언은 겨레의 절절한 자주통일지향과 념원을 반영하고있으며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성취할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도를 담고있다.

판문점선언의 채택이후 북과 남이 달성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향한 의의있는 성과들은 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 그런것으로 하여 판문점선언은 우리 겨레는 물론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판문점수뇌상봉의 력사적의의를 깎아내리려고 지랄발광해온 《자유한국당》것들은 오늘까지도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를 악랄하게 반대하고있다.

판문점선언에 따라 이루어지는 북남협력사업들은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전민족적인 사업이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이것을 외면하고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북남협력사업들을 무턱대고 시비질하는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과 담을 쌓고 대결에만 미쳐돌아가는 저들의 반민족적정체를 스스로 드러내놓는것으로 된다.

현실은 남조선의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동족대결에 명줄을 걸고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짓밟으면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화근덩어리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판문점선언을 악랄하게 비방중상하고 헐뜯으면서 당치않은 구실을 붙여 그의 《국회》비준동의를 가로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반통일적추태는 남조선 각계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정의당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를 계속 반대한다면 이 땅에 설자리가 없을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남조선의 민심은 이미 북남관계개선과 평화, 통일의 시대적흐름을 방해하려고 기승을 부리는 낡고 부패한 세력인 《자유한국당》에 침을 뱉고 등을 돌려댔다.

력대 최악의 상태에 이른 《자유한국당》의 지지률이라는것이 보수패당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저히 오르지 않고있는것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자유한국당》것들은 그야말로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 개밥에 도토리신세가 되였다.

시대와 민족의 버림을 받는 자들은 몰락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본사기자 심철영

력사의 갈피에서

전쟁을 몰아온 타협정책

인류력사에서 가장 참담한 비극을 빚어낸 뮨헨협정의 체결은 대국으로 자처하는 나라들이 파쑈도이췰란드의 침략행위를 부채질한 만고의 죄악으로 력사에 기록되어있다.

뮨헨협정은 영국수상 췜벌렌의 타협정책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승리자가 되였으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막심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도이췰란드에서 정권을 잡은 히틀러는 게르만족의 세계지배를 주장하면서 전쟁준비에 미쳐날뛰였다.

제1차 세계대전의 공포와 아픔을 체험한 유럽은 1930년대에 와서 새 전쟁의 위험이 닥쳐오자 그것을 피해보려고 모지름을 썼다. 1937년 5월 영국의 수상으로 된 췜벌렌은 온화한 외교정책 즉 타협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는 도이췰란드의 요구만 만족시켜주면 전쟁을 능히 막을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췜벌렌은 내각과 국회내에 있던 반대파의 주장을 무시하고 측근을 도이췰란드로 파견하여 히틀러에게 도이췰란드가 《볼쉐비크를 반대하는 서방의 장벽》이라고 올려추어주도록 하였다. 그의 말을 통해 히틀러는 영국이 도이췰란드의 중유럽침략을 반대하지 않을것이며 프랑스도 영국의 지지가 없이 도이췰란드와 싸우지 않을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히틀러는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않게 되자 1938년 3월 11일 거리낌없이 오스트리아로 진격하였다. 이틀후에는 오스트리아를 자기의 동방주로 선포하였다. 4월초에 영국은 오스트리아주재 대사관을 철수시키고 대신 현주재 령사관을 설치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도이췰란드의 오스트리아병탄을 승인한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영국과 프랑스의 타협적인 태도에 의해 오스트리아를 쉽게 손에 넣은 파쑈도이췰란드의 야욕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침략목표를 체스꼬슬로벤스꼬(당시)로 정하고 슈데트지방의 자치를 요구하였다.

당시 슈데트지방에는 게르만족사람들이 많이 살고있었다. 히틀러는 이것을 구실로 앞에서는 슈데트지방의 자치를 요구하고 뒤에서는 슈데트에 대한 진공작전계획을 짜놓고있었다.

췜벌렌은 침략열로 들뜬 히틀러를 달래기 위해 또다시 타협의 길을 택하였다.

1938년 9월 중순 그는 히틀러에게 서로 마주앉아 평화적해결방법을 모색하자고 지급전문을 날리고 직접 히틀러를 찾아갔다. 하지만 췜벌렌의 고달픈 도이췰란드행각은 헛수고로 되고말았다.

히틀러는 췜벌렌과의 회담에서 슈데트지방의 자치가 아니라 아예 그것을 도이췰란드에 넘길것을 강요하였다. 그에 굴복한 췜벌렌은 프랑스와 함께 체스꼬슬로벤스꼬정부를 위협하여 항복을 받아낸 다음 다시 도이췰란드로 날아가 히틀러에게 영국과 프랑스가 도이췰란드와 체스꼬슬로벤스꼬의 새 국경을 보증한다고 말하였다.

그후 췜벌렌은 체면도 다 제버리고 당신이 전쟁까지 하지 않아도 바라는 모든것을 얻게 되리라고 확신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히틀러에게 보냈다. 기고만장해진 히틀러는 영국, 프랑스, 이딸리아 3개국 수뇌자들에게 도이췰란드의 뮨헨에서 회담을 하자고 정식 요구하였다.

9월 30일 4개국 수뇌자들은 각각 뮨헨협정에 수표하였다.

뮨헨협정은 유럽의 전략형세를 변화시켰으며 파시즘의 침략행동을 더욱 부채질해주었다.

슈데트지방을 강점한 파쑈도이췰란드는 1939년 3월 체스꼬슬로벤스꼬의 전령토를 강점하고 그해 9월에는 뽈스까를 침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을 도발하였다.

췜벌렌의 타협정책은 전쟁을 막기는커녕 영국으로 하여금 세계대전에 말려들어 혹심한 피해를 입게 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로 하여 췜벌렌자신이 스스로 수상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되였다.

본사기자 김수진

인종주의반대시위

도이췰란드의 베를린에서 13일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대규모시위가 벌어졌다.

약 24만명의 각계층 군중이 시위에 떨쳐나섰다.

시위자들은 거리들을 따라 행진하면서 최근 국내에서 인종주의행위를 고취하는 극우익분자들의 준동이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이를 제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막대한 예산적자

미국에서 올해 9월말에 끝난 2018회계년도에 예산적자가 2012년이래 가장 많은 7 790억US$에 달하였다. 15일 미재무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

미국의 적대시정책 비난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가 15일 미국이 자기 나라를 반대하여 적대시정책을 계속 실시하고있는데 대해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꾸바경제를 압살하고 빈궁을 조성하며 정치체제를 전복할 목적밑에 지난 반세기이상 가해온 봉쇄조치를 계속 취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이 꾸바에 대한 적대적발언의 도수를 높이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꾸바정부와 인민은 외부의 간섭없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자주적권리를 가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스라엘군의 계속되는 탄압만행

이스라엘해군이 15일 가자지대와의 서북부해상경계지역에서 고기배를 타고 시위를 벌리는 팔레스티나인어부들에게 실탄과 최루탄을 마구 쏘아대여 34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로써 가자지대에서 3월말 이래 이스라엘의 폭압만행으로 인한 팔레스티나인사망자수와 부상자수는 각각 205명, 2만 2 000명으로 늘어났다고 가자지대 보건기관이 폭로하였다.

한편 이날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서안지역의 헤브론, 나블루스, 라말라호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 처들어가 25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을 체포해가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로씨야수상

나라의 발전문제에 언급

로씨야수상 드미뜨리 메드베제브가 최근 한 잡지에 발표한 글에서 나라의 발전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경제관계에 배치되는 힘의 방법과 제재, 무역전쟁 등은 오늘날 감수하지 않으면 안될 현실로 되였으며 외교적압력조치들은 로골적일뿐아니라 완전히 철면피한것으로 되여가고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로씨야가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과시하게 되면 언제나 이를 방해하려는 가혹한 시도들에 부닥치게 된다고 하면서 로씨야는 그러한 추이를 무시할수 없으며 세계경제 및 정치에서 응당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씨야는 경제분야 등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나라들과 투쟁할것이며 온갖 외교적압력과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사회분야, 대외관계를 발전시킬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살사건들은 무엇을 보여주고있는가

《22살 난 대학생과 23살 난 전문학교학생이 높이가 45m나 되는 다리에서 떨어져 자살》, 《17살 난 고등학교학생이 전차길에 뛰여들어 자살, 그의 손전화기에 학업에 대한 고충 등을 밝힌 유서같은 내용이 기록》

이것은 일본에서 얼마전에 일어난 자살사건들을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이다.

그뿐이 아니다. 지난 5월과 6월, 7월에도 구마모도현과 니이가다현, 이와데현에서 학생자살사건들이 련발하였다.

사건들은 대상과 동기에 있어서 서로 류사성을 띠고있다.

그것은 모두 학생들의 학업에서의 고충으로 인한 자살이라는것이다.

구마모도현내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녀학생이 자살한 사건만 놓고보아도 알수 있다.

어느날 오전 몸상태가 나쁘다고 하면서 학교에서 조퇴한 후 녀학생은 유서를 남기고 집에서 자살하였다.

유서에는 동창생들로부터 《꽉 죽어라.》는 말을 듣는 등 학대를 받은 내용과 함께 《정말 고통스럽다.》, 《더는 살고싶지 않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증오, 황금만능의 사상이 지배하고 약육강식의 질서가 판을 치는 일본의 교육실태이다.

지난해 중국의 신화통신은 《거액의 빚을 지며 대학공부를 해야 하는 일본청년들》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전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몸파기를 하느라고 야단이지만 나는 하루하루를 보내는것 그자체가 몸파기이다. 어서 빨리 18살이 되여 술집에서 일하고싶다. 술집에서 일하면 돈을 벌수 있게 된다. 돈을 벌면 대학에도 갈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올해 17살 난 처녀 고바야시가 한 말이다.

다음해이면 그는 대학에 갈 나이가 된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가고싶어하는 대학에서 공부하려면 입학금과 첫해의 학비만도 아버지의 월급보다 3~4배나 많은 돈이 든다고 한다. 그때문에 그는 부모들에게 〈대학에 가고싶어요.〉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있다.》

불쌍한 이 처녀의 운명은 일본의 수많은 가난한 청년들의 운명의 축도라고 할수 있다.

지금 일본에서 학비가 가장 눅다고 하는 공립대학만 봐도 4년간의 학비가 470만¥에 달하고 사립대학은 그보다 30~50% 더 비싸다고 한다.

여기에 생활비용까지 합하면 엄청난 액수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사태앞에서 일본집권층은 《교육의 무상화》를 운운하면서 민심을 기만하고있다.

그들이 제창하는 《교육의 무상화》는 대학수업료를 무상화하는 대신 졸업한 후에는 그 자금을 징수하는 방식의 제도이다.

일본에서는 직업얻기가 하늘의 별따기로 되여있다.

《무상》으로 대학을 졸업한 이후 직업을 얻지 못하면 한생을 빚독촉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돈이 없어 대부금을 신청하여 공부를 한 대학생들은 졸업후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빚독촉에 시달리고있다.

결국 《교육의 무상화》라는 사회의 《발전》을 이룩한다는 기만적인 허울밑에 《교육을 준 대가》로 근로대중을 2중3중의 빚으로 또다시 옭아매려는 간교한 술책에 불과한것이다.

학생들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뛰여오르는 수업료와 교내에서의 학대행위때문에 중퇴와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는것은 지금 일본만이 아닌 발전되였다고 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다반사로 되고있다.

영국의 많은 대학생들도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는데 특히 25살부터 29살까지의 학생들속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자본주의어용나팔수들이 떠드는 《복지사회》란 바로 이러하다.

사람들은 자살사건들을 통하여 인간의 초보적인 배움의 꿈마저 짓밟는 자본주의사회야말로 인간생지옥이라는것을 똑똑히 깨닫고있다.

본사기자 박예경

자연피해

예멘의 동부지역에서 16일 열대성폭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다. 무더기비를 동반한 폭풍으로 큰물과 산사태가 일어나 33명이 부상을 입고 4명이 행방불명되였으며 350여세대의 주민들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 이에 앞서 14일 방글라데슈의 동남부지역에서는 무더기비에 의한 산사태로 4명이 목숨을 잃었다.

르완다에서는 1월부터 10월 중순까지의 기간에 폭우와 큰물, 산사태 등 각종 자연재해로 234명의 사망자와 26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1만 5 260여채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9 410㏊이상의 농경지에 심은 농작물이 못쓰게 되였다.

이밖에도 뽀르뚜갈의 리스봉, 세투발, 포일브라 등 13개 지역에서 최근 태풍이 휩쓸어 피해를 입었다. 14일현재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지에 나앉았으며 전기선들이 끊어져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다.

【조선중앙통신】